금주의 법구–〈장부경전〉
세월은 덧없이 흘러간다
부지런히 수행에 힘써라.
오직 열반을 향해 나아가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96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4년 음력(윤) 4월 12일) 2020년 6월 3일 수요일



불기 2564년 부처님오신날인 5월 30일 조계사에서 봉행된 봉축법요식에서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봉축법어를 내리고 있다.

“인류 화합·공생 연등 켭시다”

조계사 등 전국 사찰, 봉축법요식 봉행

글=신성민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불기2564(202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서울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 사찰에서 부처님이 세상에 나투심을 찬탄하는 봉축법요식이 일제히 봉행됐다. 또한 참석 사부대중은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극복도 기원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5월 30일 서울 조계사에서 ‘불기2564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및 코로나19 극복 치유를 위한 기도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특히 이번 봉축법요식은 코로나19로 인해 한 달 연기해 윤사월초파일에 열리는 것이어서 그 의미를 더했으며, 감염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발열체크, 손소독제 비치, 방문자 기록 등을 철저하게 시행해 눈길을 끌었다.

감염 예방을 위해 내외빈 좌석 역시 1m 이상 거리를 둬 배치돼 1만여 명이 참석했던 예년과 달리 참석인원이 1000명 내외로 줄었다.

봉축법요식에는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을 비롯해 원로의장 세민 스님, 총무원장 원행 스님 등 조계종 스님들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재숙 문화재청장, 박원순 서울시장,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여야 대표단과 이낙연·이원욱·김영주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이 참석해 불심(佛心) 잡기 행보를 이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에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봉축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박양우 문체부 장관이 대독한 봉축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불교계의 노력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사흥서원 중 첫 번째는 ‘괴로움에 빠진 모든 이웃을 수렁에서 건져 올려 살리는 일’이며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역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자비의 마음’”이라며 “오늘 부처님오신날은 지난 한 달 전국 사찰의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 끝에 거행되는 것이다. 기도를 통해 닦은 선근 공덕을 회향해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을 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좌석거리를 둔 조계사 봉축법요식 모습. 예년보다 참석인원이 1/10로 줄었다.

여야 대표 등 정치인 대거 참석
거리두기·열체크 등 방역 철저
강창일의원 등 불자대상 수상해
文 “스님·불자께 존경과 감사”
한달 간 코로나 극복 기도 회향

봉축법요식의 증명법사로 사자좌에 오른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봉축법어를 통해 이웃을 생각하는 대광명(大光明)의 연등을 밝힐 것을 당부했다.

진제 스님은 법어에서 “부처님의 강생은 법계만유의 중생을 위한 대자대비의 시현이다. 이는 ‘본래부처’를 선언하심이요, 생명의 존엄을 천명하심이요, 인류의 나아갈 길을 제시한 것”이라며 “이웃을 평등하게 대하는 마음으로 모든 불자들은 인류화합과 공생의 연등을 켜자”고 설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국민과 불자들에게 부처님처럼 살아가자고 제언했다. 스님은 “우리 스스로 부처님처럼 마음 쓰고, 부처님처럼 말하고, 부처님처럼 행동하면 온 세상이 부처님으로 가득한 화엄세계가 성취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백만 명의 원력보살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제각각 자기 색깔과 향기로 부처님 법을 꽃피우는 화엄불국토를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법요식에 참석한 모든 사부대중은 발원문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법요식에서는 불교 홍포에 공헌을 한 불자들을 시상하는 불자대상 시상식이 함께 진행됐다. 올해 수상자로는 강창일(국회의원), 문명대(동국대 명예교수), 허재(농구감독), 동국대경주병원이 선정됐으며, 수상자·단체에게는 상패와 상금이 전달됐다.

전국 주요 산사 연계한 ‘문화유산의 길’ 열린다

문화재청,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선포

전국 주요 산사들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지친 국민에게 치유와 여가를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다가간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과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진옥섭)은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방문을 촉진하기 위해 5월 26일 서울 환구단서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했다.

‘참 만남, 참 문화유산(Feel the REAL KOREAN HERITAGE)’을 주제로 한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은 문화유산과 사람 간 거리를 좁히고 문화유산을 국민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캠페인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문화재청이 제안하는 ‘한국 문화유산의 길’ 7개 코스(기본 코스 5개·테마 코스 2개)다. 코스는 세계유산과 인류무형유산을 주요 거점으로 주제의 유사성과 지역 근접성을 고려한 2일 또는 3일의 여정으로 설계됐으며, 매체를 통해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의외로 방문객이 적었던 문화유산들을 엮어냈다.

특히 전국 주요 산사들이 문화유산의 길에 포함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기본 코스인 ‘천년 정신의 길’은 경주·안동을 중심으로 코스가 만들어졌다. 경주 석굴암과 불국사를 출발해 계림·월성과 도산서원을 거쳐 안동 봉정사로 이르는 코스다.

‘백제고도의 길’은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에 분포된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살펴볼 수 있는 코스로 공산성에서 시작해 마곡사와 부소산성, 익산 미륵사지, 왕궁리 유적이 포함된다.

테마코스인 ‘수행의 길’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을 돌아보도록 구성됐다. 마곡사, 법주사, 대흥사, 선암사, 송광사, 통도사, 해인사, 부석사, 봉정사로 이어지는 코스다.

이밖에도 △소릿길(전북·전남, 인류무형유산) △설화와 자연의 길(제주) △왕가의 길(서울·인천·경기) △서원의 길(한국의 서원) 등도 특성 있는 문화유산 순례길이 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이들 코스들은 문화유산들이 포함된 지역의 축제와 해당 문화유산에서의 체험·공연 등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개별 방문 코스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의 일환으로 ‘5대 특별사업’과 ‘7대 연계사업’도 진행된다. ‘5대 특별사업’은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을 대표하는 특별 행사로, 국내 세계유산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7대 연계 사업’은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 공연·야행·전시·축제 등으로 ‘무형문화재 전시·공연’, ‘문화재 야행(전국 36개소)’ 등이 진행된다.



문화재청은 5월 26일 서울 환구단서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했다.

‘수행의 길’ 등 7개 코스 ‘눈길’
산사와 궁궐 활용 코스 제안
축제·야행·공연 등도 기획

문화재청은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주요 행사와 ‘문화유산 방문 코스’ 등의 주요 내용을 알리기 위해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한다. 홈페이지는 6월 중순부터 서비스될 예정이다. 또한 문화유산채널과 자체 유트브·SNS를 통해 문화유산 방문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고 시민들과 소통할 계획이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이번에 준비한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고 즐거운 문화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다음주 6월 10일자 신문은 쉽니다

불기 2564(2020)년 부처님오신날
우리도 부처님같이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

종정 진제 법원
원로회의의장 세민 총무원장 원행
중앙종회의장 범해 교육원장 진우
호계원장 무상 포교원장 지홍

대한불교조계종

신계사 복원·동시법회 '南北불심' 하나로 결집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창립 20주년 성과와 과제는



2004년 봉행한 '금강산 신계사 대웅보전' 낙성식.


사진 위부터 창립법회(2000), 신계사 복원준공식(2007), 복원 8주년 법회(2015).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남북불교 교류의 교두보이자 불심에 기반한 민족화합의 상징으로 역할해 온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가 올해로 꼭 20주년을 맞았다. 척박했던 불교계 통일운동 여건을 딛고 남북불교도 동시법회와 금강산 신계사 복원 불사 등 굵직굵직한 활동을 통해, 남북관계가 단절되는 난관마다 교류의 물꼬를 트며 민간교류를 대표하는 단체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지속되면서 북측과의 교류 활동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지만, 올해 안으로 조직 일부 개편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꾀하는 등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이하 민추본)는 2000년 6월 8일 조계종 불교통일사업·남북교류를 이끌어 갈 전담기구로 창립했다.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된 창립법회는 남북 불자들의 불심에 기반한 통일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법석으로 봉행됐다.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 스님을 총재로, 포교원장 정련 스님을 본부장으로 모신 가운데, 숭산, 지관, 월주, 종하, 오현 스님 등 당대의 선지식들이 고문으로 함께했다.

이날 창립법회에서 민추본은 "분단으로 인한 남북한 대립과 갈등의 관계를 청산하고 대자대비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민족이 새로운 화합과 평화의 공동체로 자리 매겨지기를 기원하고 실천하겠다"고 선언했다.

2000년 조계사서 창립
당대 선지식 대거 참여
악화 일로 남북관계 속
인도 지원 등 물꼬트며
"민간교류의 선도" 평가
올해 조직 개편 예정도

이를 증명하듯 창립 이듬해 3월, 민추본은 북측 조선불교도연맹과 금강산 신계사터에서 '민족화합과 금강산 신계사 복원을 위한 기원법회'를 봉행한데 이어 부처님오신날 즈음 첫 '조국통일기원 남북불교도 동시법회'를 조계사에서 봉행했다.

남북불교도동시법회는 이후에도 남북불교간 교류의 상징이자, 남북 불자들의 신심과 전통문화의 동질성을 토대로 남북간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매개가 돼 왔다. 비록 양측 정부간 관계에 따라 한 자리에서 봉행되지 못하거나 공동발원문조차 채택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지만 부처님오신날과 8.15 기념법회를 공동으로, 혹은 동시에 개최한다는 자체만으로 남북관계 현주소를 확인하는 바로미터로 평가되기도 했다.

민추본의 핵심적인 성과로 손꼽히는 금강산 신계사 복원불사는 남북불교 교류 역량의 결집체이자 남북화해협력의 결과물이다. 금강산 4대 명찰 중 하나인 신계사는 한국전쟁때 소실돼 주춧돌만 남은 폐허 상태였다. 남측 조계종 민주본과 북측 조선불교도연맹은 2000년 6.15공동선언을 계기로 공동복원불사를 추진, 2004년 4월 본격 착공에 들어가 2007년 10월 복원된 신계사를 낙성했다. 당시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낙성법회에서 "남북의 목재와 물, 돌과 흙이 하나로 모여 우리민족의 성지로 거듭났다"며 "금강산을 통일의 상징으로 지켜나가자"고 당부했다.

'북한 사찰 및 민족문화재 단청불사', 북한 사찰 및 문화재 전수조사, 지속적인 대북인도적 지원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그럼에도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게 되면서 지난 10여 년간 대북협력사업은 물론, 남북간 교류에 어려움이 이어지는 등 민추본의 역할도 크게 축소된 것이 사실이다.

민추본이 창립 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추본을 중심으로 한 종단 안팎의 여건은 물론이고, 조불련도 북측 방침에 따라 공식적인 교류 창구를 닫아 걸었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민추본은 올해 창립 20주년을 계기로, 일부 조직개편을 통해 인적 구성과 조직 비전 등에 대한 변화를 꾀할 방침이다.

한·스 문화교류 중심 (사)마하위하라 창립

5월 23일 창립총회 진행
양국불자 함께할 공동체
한국불자 중심으로 첫발

아산 마하위하라(주지 담마끼띠, 스리랑카) 사원이 한국과 스리랑카 불자들의 문화교류를 위한 토대로 거듭날 전망이다.

마하위하라 사원은 5월 23 한국불자들을 대상으로 봉행한 '부처님오신날 웨삭데이 법회'에서 사단법인 마하위하라 창립총회를 진행했다. 사단법인은 담마끼띠 스님을 이사장으로, 고문 공운 스님, 남부현 선문대 교수, 박인성 동국대 교수, 이정숙 울산 자모회장 등이 이사로 선임됐다. 감사에는 조태진 변호사와 인천 이혜영 회원이 선출됐다.

이날 창립한 사단법인 마하위하라는 우선적으로 한국불자들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향후 스리랑카 불자들을 중심으로 한 사단법인을 추가로 설립해, 마하위하라 사원에 기반한 여러 가지 교류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회원들의 지속적인 활동과 상호 교류를 위해 마하위하라 사원은 매주 주말 정기적으로 봉행하는 법회와 함께, 매년 설날행사 및 체육대회, 카티나(가사공양) 법회, 웨삭데이 법회, 방문법회를 추진 중이다.

불교 및 인문학 강좌, 명상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를 통한 교류도 활발하게 진행될 예정이며, 전통악기 배우기, 전통요리 배우기 등 양국 문화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은 물론, 지역사회 어린이를 위한 영어교육과 한국인을 위한 신할라어 교육도 계획 중이다.

사단법인 마하위하라는 한국·스리랑카 문화교류 및 불교와 명상 수행에 관심있는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담마끼띠 스님은 "한국과 스리랑카 불자들이 각각의 문화에 기반한 신행생활을 하는 동시에 불교를 매개로 서로 교류하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양국 불자들이 서로 화합하고 상생하는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동국대 교수들 '제자사랑 릴레이' 눈길

법대, 사과대도 2500만원 기부

코로나19로 학업을 이어가기 힘든 제자들을 위한 동국대 교수들의 자비행이 이어지고 있다.

동국대 법과대학과 사회과학대학 소속 교수들은 5월 24일 제자들을 위해 코로나19 극복 장학금을 기부했다. 기부금 전달식은 동국대 총장실에서 이뤄졌다. 이번 모금액은 법과대학 1000만원, 사회과학대학 1500만원으로 총 2500만원이다.

강동욱 동국대 법과대학장은 "제자들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교원들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기부 취지를 밝혔다.

장하용 사회과학대학장은 "이번 기부가 제자들의 학업과 생계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기부 릴레이가 확산되어 더 많은 학생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윤성이 동국대 총장은 "많은 단과대학에서 자발적으로 기부 릴레이를 이어주고 계심에 감사드린다. 교수님들께서 모금해주신 장학금은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는 데에 소중히 활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윤성이 총장, 기획부총장 종호 스님, 곽채기 교무부총장, 김관규 연구부총장, 김애주 대외협력처장을 비롯해 강동욱 법과대학장, 장하용 사회과학대학장, 김형용 사회과학대 부학장, 임규철 법학과 학과장, 강삼모 경제학과 학과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왼쪽부터 장하용 사과대학장, 윤성이 동국대 총장, 강동욱 법대학장.

한편, 그동안 동국대 제자사랑 릴레이에는 국어국문문예창작학과를 시작으로 공과대학, 바이오시스템대학, 직원노동조합, 처부장회, 정책위원 등에서 참여했다. 제자들을 위한 릴레이 기부는 교수들이 식사 중 코로나19에서 학생들을 위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재학생들을 돕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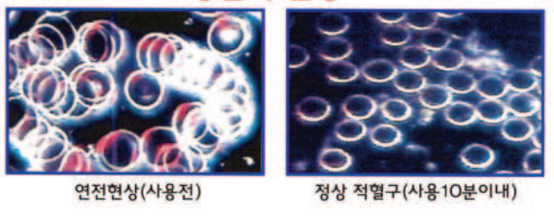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지킨다!


BLOOD MATE® (비누), ORAL MATE® (치약)의 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에 의한 항균시험 시험성적서

체외에는 머리부터 발가락 사이까지 BLOOD MATE®비누

폐렴균,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하는 BLOOD MATE®비누는 보약을 먹은것도 아니고 주사를 맞은것도 아닌데 BLOOD MATE®비누를 단 한번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연전현상의 엉켜있는 적혈구가 정상적혈구로 뇌파가 안정되며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므로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BLOOD MATE®비누로 샤워하고 물기를 닦은후 재차 샤워타월을 깨끗이 빨아 짠 후 비누를 다시 묻혀서 거품을 내어 머리부터 발바닥, 발가락 사이까지 거품으로 맛사지하면 머리거품이 가발을 쓴것 같지만 전신을 맛사지하는 동안 거품이 세포속으로 스며들고 전신의 거품도 세포속으로 스며들며 거품이 없어지면서 허리통증, 어깨, 목아픔이 없어지고 뇌파가 안정되어 정신이 맑아지고 다리에 쥐가 나는것을 개선하는 효과.

BLOOD MATE®비누는 아토피, 무좀, 가려움증, 비듬, 발뒤꿈치각질, 체취 등 각종 피부질환을 없애주고 때를 일부러 밀지 않아도 거품으로만 마사지해도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투명한 피부는 물론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피부보습의 효과가 있다.

체내에는 구강부터 항문까지 ORAL MATE®치약

폐렴균·대장균·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하는 ORAL MATE®치약은 양치 후 입 밖으로 뱉어내지 않고 그대로 복용하면 구강부터 항문까지 사이에 폐렴균에 의한 질환 예방과 대장균에 의한 식중독, 배탈, 설사가 없어지고 과식·과음 시에는 양치 후 먹으면 속이 빨리 편안해지고 해독되면서 정신이 맑아집니다. 그리고 잇몸이 튼튼해지며 이나 잇몸이 아플 때에는 아픈 부위에 치약을 그대로 발라만 줘도 밤새 통증이 사라집니다. 팔과 다리에 피가 나는 정도의 상처에 치약을 바르고 반창고를 덮어 주었는데 통증도 없고 3일이 되니 깨끗이 상처가 나아버린 체험을 했습니다.

폐렴균·대장균·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하는 ORAL MATE®치약은 저녁 식사 뒤 양치 후 삼켜버리면 입안의 세균이 없어짐은 물론, 구강부터 항문까지 건강해지고 매일 고질적인 구취까지 없어져 입안이 개운한 것이 특징입니다.

BLOOD MATE® 강비누:25,000원2개 = 50,000원
BLOOD MATE® 순비누:15,000원5개 = 75,000원
ORAL MATE® 치 약:21,000원3개 = 63,000원
188,000원 ➡ SET 구매시 100,000원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세정제인 비누, 치약이 별도의 추가부담없이 비누는 피가 맑아져 혈액순환 정상화에 의한 피부질환 개선, 치약은 잇몸건강은 기본이고 소화불량, 식중독, 배탈, 설사가 없어진다면 이는 정부가 생산활동을 막을것이 아니라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보호하고 장려 육성하는 것이 국가의 올바른 정책입니다.

34년의 환지본처, 강남 포교 새 門 서다

봉은사 5월 29일 일주문 낙성식 거행

2019년 3월 28일 합의 이후
같은해 5월 29일 이운고불
1년간 전문과정 거쳐 낙성


봉은사 일주문 낙성까지 함께 힘을 모은 사부대중이 힘차게 일주문 제막을 하고 있다. 봉은사 일주문은 1800년대 우리 전통문화의 멋을 강남 한복판에서 전하는 상징으로 자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봉은사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일주문이 34년 만에 환지본처(還之本處)했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는 5월 29일 경내서 일주문 낙성식을 봉행했다. 봉은사 일주문은 1880년대 조성된 것으로 1986년 진여문 불사과정서 양평 사나사로 이건됐다. 이어 2011년 양주 오봉산 석굴암으로 옮겨져 석굴암 불이문으로 역할을 해왔다.

34년 만에 돌아온 옛 일주문을 보기 위해 이날 낙성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조계종 문화부장 오심 스님 등 스님들이 대거 참석했다. 환지본처 본지풍광이란 취지에 공감해 아무런 조건없이 봉은사 이건을 결정한 양주 오봉산 석굴암 주지 도일 스님과 함께 뜻을 모은 김상훈 봉은사 신도회장 등 신도 100여 명도 참석했다.

봉은사 일주문은 건립당시 기둥, 창방, 평방, 공포 등 주요부위가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 보존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 받는다. 네 면에 모두 지붕면이 있는 독특한 형태인 우진각 지붕이 특징이다.

봉은사 전통의 상징이 될 일주문 낙성에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그동안 과정을 돌이켜보면 땔감으로 사라질 운명에 처한 일주문을 석굴암 주지 스님이 되살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어렵사리 이운된 일주문은 봉은사 경내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로 앞으로 소중한 성보로 사찰을 빛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낙성을 축하하기 위해 자리한 총무원장 원행 스님도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과 오봉산 석굴암 주지 도일 스님 등의 노력으로 이같이 제자리를 찾게 됐다. 교구본사인 봉선사의 협조와 스님들의 원력, 사찰 신도들의 이해와 참여로 이뤄진 낙성이기에 그만큼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사찰로 봉은사가 더욱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본격적인 낙성에 앞서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석굴암 주지 도일 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편, 이번 봉은사 일주문은 2019년 봉은사 측의 요청에 의해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와 오봉산 석굴암이 3월 28일 이운을 전격합의하며 이건이 시작됐다.

'영양 현리 오층모전석탑' 보물된다

문화재청 지정예고… "경북 모전석탑 계승 가치"

신라 말기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북 영양 오층모전석탑<사진>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승격 ·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경북 영양에 있는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2호 '영양 현리 오층모전석탑(英陽 縣里 五層模塼石塔)' 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5월 28일 밝혔다.

'영양 현리 오층모전석탑' 은 옛 사역은 확인되지 않지만 사지 주변에서 출토된 용문(龍紋) 문양의 암막새, 탑의 치석(治石, 돌을 다듬음) 형태와 문설주의 인동문, 일제강점기 당시 보고서 등을 통해 조성시기를 신라 말이나 고려 초로 추정하고 있다.

이 탑은 석재를 벽돌(塼)모양으로 다듬어 축조했다. 크게 기단 · 탑신 · 상륜부로 구성됐다. 1층 탑신은 12단으로 축조했고 남면에 감실을 두었다. 감실은 화강석으로 된 장대석으로 좌우 문설주와 상하인방을 놓아 문비를 설치했다.

좌우의 문설주는 표면에 당초문의 문양을 새겨 넣었고, 벽돌모양으로 석재를 다듬을 때 각진 위치에 자리한 모서리돌을 둥글게 처리하여 탑의 조형에 부드러움을 주고자 했다. 이 같은 조성 사례는 다른 석탑과 전탑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다.

탑신부는 5층이며 2층부터 급격한 체감을 두었고, 경북 지역 모전석탑의 체감비와 유사한 81도를 유지하고 있다. 국보 제187호 '영양 산해리 오층모전석탑' 보다 규모는 작지만 같은 재료의 사용, 모전석탑 계열 형식의 5층탑, 남쪽에 설치한 감실, 체감비 등에서 유사성을 갖는다.



일제강점기 유리건판 사진에서는 4층 일부까지 남아 있는 모습이었으나, 1979년 해체 복원 과정에서 5층으로 복원했다. 200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기단 등의 주변 보수정비 공사를 진행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문화재청은 "해체보수 과정에서 기단부와 옥개부 일부가 변형된 부분은 아쉽지만, 경북 지역에 집중된 모전석탑 계열의 탑으로 희소성과 비교적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서 보호될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영양 현리 오층모전석탑' 에 대해 30일간의 예고기간과 심의 절차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제18회 유심작품상 함민복 · 박시교 · 이승하

만해선양회 발표… 특별상 오탁번 시인


함민복 시인 박시교 시인 이승하 교수 오탁번 시인

만해 한용운 스님의 문학 사상을 선양하기 위해 제정된 유식작품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만해사상실천선양회는 "제18회 유심작품상 수상자로 시 부문에 함민복 시인의 '악수' 를, 시조부문에 박시교 시인의 '무게考' 를, 평론 부문에 이승하 중앙대 교수의 〈한국시조문학의 미래를 위하여〉를, 특별상에 오탁번 前한국시인협회장을 각각 선정했다"고 5월 29일 밝혔다.

함민복 시인에 대해 심사위원회는 "오랫동안 따뜻한 시선으로 시를 써왔고, 이번 수상작인 '악수' 도 시인 특유의 천진함과 따뜻함이 묻어나오는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박시교 시인의 '무게考' 에 대해서는 "수상이 늦었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우리나라 시조 문단을 대표하는 뛰어난 시조 시인"이라고 상찬하며 "사물과 현상을 측은지심으로 보살피는 시를 써왔다. 이번 수상작품 '무게考' 도 삶의 무게와 처연함이 인상 깊다"고 밝혔다.

평론 수상자 이승하 교수에 대해서는 "그간 시조 전문 평론집은 거의 없었다. 시조 평론이라는 새로운 평론집을 세상에 내놓은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특별상 수상자인 오탁번 前회장은 원로시인으로서 한국시인협회장을 역임하는 등 한국 문단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해온 점을 인정받았다.

한편, 제18회 유심작품상 시상식은 오는 8월 11일 동국대 만해마을에서 열리며 각 부문 수상자에게는 각각 1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신성민 기자

익산 연동리 석조좌상 대좌 정비 완료

문화재청 · 익산시 진행… 가려진 대좌 확인

백제 최대(最大) 환조 불상인 익산 연동리 석조여래좌상(보물 제45호)의 감춰졌던 대좌를 볼 수 있게 됐다. 지난 3월부터 진행됐던 정비사업이 마무리돼 대좌 앞 나무 불단이 강화유리로 교체돼 대좌가 온전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과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정부혁신사업의 하나인 '2020년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 · 관리 사업' 에 따라 정비사업을 진행 · 완료했다"고 밝혔다.

대좌를 가리고 있어 크기도 정확히 가늠할 수 없게 만들던 나무 불단이 교체됨에 따라 관람객들은 석불의 온전한 규모도 체감할 수 있게 됐다. 흔히 볼 수 있는 연꽃무늬가 아니라 부처님 옷자락이 흘러내린 모습의 대좌도 확인 가능해졌다.

익산 연동리 석조여래좌상은 대좌를 포함하여 불상이 2.68m, 광배가 받침돌을 포함하여 3.93m로 백제의 환조 불상 중 가장 크기가 크다. 처음 발견되었을 때부터 사라지고 없던 불두(佛頭)만 새로 만들었을 뿐, 불신(佛身), 광배(光背), 대좌(臺座)는 고스란히 잘 남아 있어 백제 미술의 백미(白眉)로 인정받는 작품이다.


정비 후 익산 연동리 석조여래좌상의 모습. 나무 불단에 가려진 대좌를 확인할 수 있다.

문화재청과 익산시는 언제 만들었는지 알 수 없는 승려 모습의 불두를 교체할 계획도 갖고 있다. 문화재청은 "현재 석불에 대한 실측조사를 8월까지 진행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신체적인 비례와 여러 불상의 모습을 분석해 어색한 불두의 모습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생명 기도로 채운 부산연등축제

부산불교연합회, 릴레이 기도 회향

30일 연합 릴레이 기도 정진
구 · 군 불교聯, 단체 28팀 참여
부산불교대상 시상식도 열려
"마음 밝힌 기도 그대로 남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부산불교연합회가 5월 27일 송상현광장에서 '국운융창, 부산발전 및 안녕을 발원하는 기도정진' 을 회향했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경선)가 5월 27일 송상현광장에서 '국운융창, 부산발전 및 안녕을 발원하는 기도정진' 을 회향했다.

30일 간 진행한 기도를 회향하며 스님들은 "기도는 거룩한 불사이며 장엄등 조명이 꺼진 후에도 마음을 밝히는 빛은 그대로 일 것"이라며 "회향 후에도 기도를 이어 갈 것"이라고 했다.

회장 경선 스님은 "코로나 19 극복과 국운융창을 발원하는 릴레이 기도는 부산 시민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고 부처님의 가피가 빛으로 퍼져 나가는 거룩한 불사였다"며 "연등축제기간 동안 광장을 밝힌 빛과 스님들의 기도 음성은 불성을 깨우는 마중물이 되고, 장엄등 빛이 사라져도 시민들의 마음을 밝힌 빛은 그대로 남아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릴레이 기도는 부산에서 활동하는 스님들과 불자들이 팀을 구성하고 매일 마다 끊임없이 기도를 이어가는 정진이었다. 부산불교연합회에 소속된 구 · 군불교연합회와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등 28개 팀이 구성되었고 매일 15여명이 동참해 기도를 이어갔다. 코로나로 인해 현장 참가 수는 제한됐지만 오후 6시면 어김없이 유튜브로 중계해 함께하도록 이끌었다. 부산불교연합회 유튜브 채널(BBATV)은 새로운 시도로 눈길을 끌었다. 부산불교연합회 유튜브 채널은 앞으로 팔관회, 사명대사 추모재 등 연합회 행사를 알리는 채널로 운영될 예정이다.

회향식에서 스님들과 불자들은 약사여래 기도의식으로 다시 한 번 국운융창을 발원했고 발원문과 봉행사, 법문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회향을 맞아 '부산불교대상' 시상식도 진행됐다.

대상은 BTN불교TV염불공양회(회장 하정선)가 수상했다. BTN불교TV염불공양회는 무보시 염불 시다림 봉사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불교 행사에서 육법공양으로 법회를 장엄해 불교문화 확산에 앞장서왔다. BTN불교TV염불공양회는 이날 시상식에서 받은 상금 1000만원을 영상 미디어 포교를 위해 불교TV에 전달해 큰 박수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김옥희 금정불교대학 총동문회 사무부총장이 수상했으며, 우수상은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부산개인택시불자회가 받았다. 상금은 최우수상 500만원, 우수상은 각 300만원이 전달됐다.

박수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장은 수상자 및 단체명을 모두 언급하며 축하의 말을 건넸다. 박 회장은 "지역사회와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봉사한 불자를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제정한 상이다. 오늘 수상한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며 여러분의 활동이 귀감이 되고 빛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회향식에는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경선 스님, 수석부회장 세운 스님, 상임부회장 자관 스님, 진광정사 및 연합회 스님들과 박수관 총연합신도회장, 설동근 총연합신도회 고문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했다.

'코로나 극복' 기원, 빛고을 장엄하다

5월 23일 축소 진행, 원력 모아


5월 23일 5.18민주광장서 불자들이 코로나 극복 약사여래기도를 하고 있다.

광주지역 봉축행사인 '2020빛고을관등회' 가 코로나19의 철저한 준비 속에 진행됐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동현)는 5월 23일 5.18민주광장에서 '2020빛고을관등회 관등법회' 를 개최하고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했다.

이날 행사는 당초 관등법회와 제등행진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등법회만으로 축소 진행됐다.

행사에는 동현 스님,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 전 송광사 주지 현고 스님과 이용섭 시장, 장휘국 교육감, 송갑석 국회의원을 비롯한 5개 구청장 등 700여 사부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부처님의 탄신을 축하했다.

우여곡절이 많은 광주봉축행사였다. 광주 봉축기획단은 당초 1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어울림마당, 관등법회, 제등행진, 대동한마당 등 빛고을 관등회 본행사를 준비했다.

하지만 2월부터 전국으로 확산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신도들의 참여행사인 어울림마당과 대동한마당이 취소되었고, 전통등전시회와 관등법회, 제등행진, 점등식 위주의 행사로 준비됐다.

행사를 불과 1주일 남기고 터진 이태원클럽의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제등행진 또한 취소되어 이날 관등법회만 진행한 것이다.

행사가 축소되면서 이날은 특별히 현고 스님의 법문과 코로나19종식을 위한 약사여래기도가 봉행되어 힘든 광주시민들에게 위로의 시간이 되었다.

동현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생긴 환자와 생을 달리한 분들, 그리고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깊은 애도와 '힘내시라' 는 격려의 말을 전하고 싶다"며, "결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지구촌을 살아가는 인간과 모든 생명이 다함께 극복해야 하는 문제이다"라고 강조했다.

행사의 마지막은 전체 참가자가 다함께 약사여래 기도를 10여 분 간 진행하면서, '코로나19의 빠른 종식' 을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삼광사, 청소년 위한 연등 축제 '눈길'

5월 24일 '연등, 마음을 밝히다' 삼광 예능대회

부산 대표 천태종 사찰 삼광사가 청소년을 위한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삼광사는 '연등, 마음을 밝히다' 라는 주제로 삼광 예능대회를 개최하고 청소년과 어린이를 위한 장으로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했다.

삼광사(주지 세운)는 5월 24일 경내에서 천년의 빛을 품은 삼광사 연등문화제 일환으로 '연등, 마음을 밝히다' 청소년 예능대회를 개최했다.

예능대회는 글짓기, 그리기, 댄스, 시화 부분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초등학생 및 중 · 고등학생 등 청소년 200여 명이 동참했다.

심사를 거쳐 그리기 및 시화 부문에 배규련 학생 외 5명, 글짓기는 도예린 학생 외 3명, 댄스 부문에는 박현민 외 3명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으며, 시상은 5월 30일 진행됐다. 대회서는 참가한 학생들을 위해 마술쇼, 장기자랑, 체험 등이 진행됐다.


삼광사는 5월 24일 경내에서 천년의 빛을 품은 삼광사 연등문화제 일환으로 '연등, 마음을 밝히다' 청소년 예능대회를 개최했다.

삼광사 '천년의 빛을 품은 삼광사 연등문화제' 는 5월 28~30일 경내 일대에서 개최됐다. 연등콘서트와 연등 사진전, 연등 오감체험 등 다채롭게 진행됐으며 부산불자 및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불교문화체험으로 이어졌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군산사암聯, 봉축법요식 봉행

코로나사태로 연등행사 생략



군산사암연합회(회장 도연, 상주사 주지)가 5월 24일 봉축법요식을 봉행했다.〈오른쪽 사진〉

군산 수송공원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은 전북영산작법보존회 스님들의 영산작법시연과 살풀이, 한량무의 식전공연으로 시작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부처님오신날 공동집행위원장 성우 스님(금산사 주지), 진성 스님(태고종 전북종무원장), 흥천사 회주 지환 스님을 비롯한 사암연합회 스님들과 강임준 군산시장, 김경구 군산시의장, 김관영 국회의원, 신영대 국회의원 당선자 등 지역 기관장, 불자 100여 명이 동참했다.

성우 스님은 봉축법어를 통해 "부처님께서 천상천하를 말씀하신 것은 모든 생명이 존귀하기 때문이다" 며 "모든 사람이 훌륭하고 가치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불자가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스님은 "중생에게는 누구나 불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참마음"이라며 "부처님의 지혜를 자각하고 자비행을 실천하는 진정한 불자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진성 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코로나 19로 인해 모든 국민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행한다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길 것이다" 며 "부처님 오신날을 계기로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스스로 당당해지고 위대해지는 불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빚에서 빛으로' 불교 '부실채권 소각' 보시행

지구촌공생회 · 전북봉축위 1000만원씩 전주시에



국제구호단체인 지구촌 공생회(이사장 월주)와 전북 봉축위원회(공동 위원장 성우, 진성)가 빚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한 부실채권 소각기금 2000만원을 전주시에 전달했다.〈오른쪽 사진〉

5월 23일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은 전북 봉축위원회와 지구촌공생회를 대표해 김승수 전주시장에게 각 1000만원씩 총 2000만원의 부실채권 소각기금을 전달했다.

금산사 종무소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성우 스님은 "빚으로 고통받는 전주시민들이 빚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작은 정성이지만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불교계에서는 금융취약계층의 울타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지사장

身 心 休
몸-마음-쉼
자살예방 프로그램 공모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생명존중·자살예방 '몸·마음·쉼' 사업의 일환으로
자살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공모를 실시합니다.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 시 수상금 및 특전을 드리오니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응모기간 2020년 6월 1일 부터 6월 22일 까지

공모주제
명상을 활용한 자살예방 프로그램
※프로그램 시행대상 : 유가족, 자살시도자, 자살고위험군

대 상
명상지도사, 자살예방 강사 및 교육생, 자살예방에 관심이 있는 개인 및 단체

제출서류
• 공모참가신청서 / 프로그램 설명서 / 프로그램 워크북
- 불교상담개발원 홈페이지(www.kbcd.org)
'2020 문체부 자살예방프로그램 공모'에서 다운받아 사용
- 프로그램 설명서 및 워크북은 제본(5부)하여 우편으로 발송
• 사전사후 효과성 검증을 위한 측정도구 반드시 제출

접수방법
• 등기우편 발송과 이메일 발송 모두 제출
• 제본물 발송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운사길59, 1층.
불교상담개발원 / 공모 담당자 이해청 팀장
• 메일주소 - jabi7378@naver.com

우수 프로그램 선정 및 수상

구 분	수상금	선 정
최우수상	1,000,000원	2개

선정발표
2020년 6월 26일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연락

선정 프로그램 특전
• 해당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홍보 및 전문가의 자문, 강사비 등 운영비 지원
• (몸·마음·쉼 자살예방 명상프로그램) 워크북 제작 및 배포
•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과 공동 사업 전개

문의처
불교상담개발원 02-737-7378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 현불 논단 |

코로나 치유 핵심은 '자비'



방영준 교수
성신여대 윤리교육과

코로나19, 빈자에게 큰 고통
부유층 · 빈곤층 격차 더 커져
사회 불평등 구조 심화 전망

니부어 사회윤리 중요성 강조
코로나 치유는 사회정의 문제
핵심은 '평등'에 있음을 강조

붓다 가르침 그 자체도 '평등'
불교적 평등은 모든 존재 해당
자비공동체 구현, 시대적 과제

코로나19의 쓰나미가 계속 지구촌을 흔들고 있다. 코로나의 파고 속에서 지구촌의 속살이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있다. 소위 강대국 또는 문명국이라고 지칭되고 있는 나라들의 취약성과 문제점도 여실히 나타났고, 바람직한 인간 삶의 양식과 시회구조에 대해 많은 성찰을 하게 만든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결코 평등하지 않았다.

코로나의 파고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익사하는 사람들의 태반이 가난한 사람과 가난한 국가다. 코로나로 인해 불평등 사회의 문제점이 여실하게 나타나고 있다. 부유층과 빈곤층의 소득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라고 칭해지는 중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코로나로 인한 가난한 사람들의 비참한 현실과 고통이 우리를 아프게 만든다. 이를 어쩌랴. 코로나는 앞으로 더욱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한다.

라인홀드 니부어(R.Niebuhr)의 저서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Moral Man and Imoral Society)〉가 생각난다. 그는 개인의 도덕성에 바탕을 둔 개인 윤리적 차원의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사회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사회윤리는 사회구조와 제도의 도덕성에 관심을 가진다. 여기서 사회정의의 문제가 제기된다. 어떤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이며 어떻게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할 것인가 하는 사회윤리적 과제가 등장한다. 코로나19의 치유문제는 단순한 의학 · 방역적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회정의의 문제이기도 하다.

사회정의의 핵심은 바로 평등의 문제이다. 필자는 불교의 정치철학을 탐구하면서 붓다 다르마의 속제화를 필요치 않는 가르침이 바로 '평등'의 문제라고 보았다. 평등의 문제는 붓다의 가르침에 있어서 매우 일상적이다. 붓다 재세 시의 시대적 배경으로 볼 때 매우 놀라운 계몽적인 가르침이라 하겠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인간의 평등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의 평등을 강조하고 있다.

붓다가 말한 중생은 인간 중심적 개념이 아닌 모든 생명과 무생물까지 포함한다. 모든 존재를 자비의 대상으로 보는 생명 평화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불교에서의 사회윤리와 사회정의는 바로 '공업(共業)'의 문제와 연결된다. 불교의 업설은 개인 차원의 업과 사회적 차원의 공동의 업까지 포함한다. 인간의 바람직한 삶의 양식은 개인적인 선업뿐만 아니라 공동의 사회적 업이 뒷받침될 때 성취되는 것이리라. 이것은 바로 자비 공동체를 구현하는 일이다.

붓다의 연기법과 무아사상에서 불교의 자비 사상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온다. 모든 존재는 시방삼세 존재자들의 상호적인 관계에서 나온 선물이다. 따라서 연기에 대한 깨달음은 자신의 존재와 삶이 우주적 연쇄의 존재가 주는 선물임을 깨닫고 다른 존재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비는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 느끼는 사랑을 다른 형태의 모든 존재에 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비 구현은 이론과 관념으로는 쉽게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천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더구나 개인윤리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윤리적 차원에서 자비 실천을 구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현대사회에서 작동할 자비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가에 대한 통섭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붓다의 긴 여정은 대자대비의 길이다. 자비 없는 깨달음은 없다. 자비 없는 수행은 없다. 그래서 자비 없는 불교는 없다. 이제 자비의 큰 그릇으로 '자비 정의론'의 지혜를 탐구해 보자. 이것은 자비의 정신을 사회구조와 제도에 어떻게 정착시키느냐의 문제이다. 코로나 치유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



지인 스님의
병상포교일기

부처님오신날의 추억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부처님오신날 병원 강당 봉축행사를 축소하는 대신 일선에서 가장 힘들게 고군분투한 병원 직원들에게 떡과 음료수를 전달하는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봉사자들은 새벽부터 일찍 나와 직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정성껏 준비했다. 80세가 넘은 노보살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자비심을 불러 일으켰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직원들에게 많은 위로와 위안이 된다는 말씀과 더불어 병원장님의 감사 인사를 전하는데 만감이 교차했다. 처음 병원 법당을 개원한 이래 병원과의 관계에서 빚어진 갈등 상황에 대한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기 때문이다.

2017년 11월 20일 불교법당을 개원할 때, 포교를 펼치게 될 기대에 가슴이 벅찼다. 그러나 현실은 이상과 너무나 거리가 멀었다. 무엇보다 병원 봉사 환경이었다. 그동안 먼저 들어온 타종교 세력이나 공단 협력 병원으로 들어온 임직원들이 종교의 색채가 강하다보니 불교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왜 여기에 불교가 들어왔나"하는 식의 반응이었다. 환자들마저 이곳은 기독교 병원인데 불교가 있다는 사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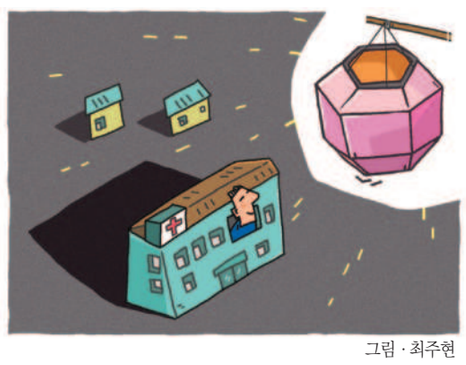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의아하다는 표정을 짓기도 했다.

그리고 2018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았다. 로비에 연등 설치를 위해 병원 측과 여러 번의 이해와 접촉을 시도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연등설치 불가' 였다. 종교 상징물의 설치는 안된다는 것이다. 내가 "크리스마스 때 트리는 설치하면서 왜 연등은 설치할 수 없냐"고 항의하자 "크리스마스트리는 연말 행사지만 연등 설치는 종교 행사"라는 것이다. 어처구니없는 논리였다. 병원장에게 장문의 편지를 써 연등 설치를 허락해달라고 거듭 강조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싸늘했다.

나는 경기도신도연합회 회장인 전홍은 회장님께 이 일을 상의한 뒤 불자들과 스님들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난관의 벽을 넘어서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다. 그리고 병원 측과 만남의 자리를 갖게 되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연등을 설치하긴 했지만 병원 측은 그 해 연말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지 않았고, 불교 법당과의 갈등 고리는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채 일단락 됐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며 병원 임직원들이 힘들고 지칠 무렵 병원의 세 종교 원목자들이 함께 십시일반 의료진들을 위한 성금을 마련하고 마스크를 기부하는 등 여러 노력을 하면서 병원과의 냉랭했던 관계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부처님오신날 직원들을 위한 나눔 행사가 모두 끝나고 오후 늦게 병원장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스님,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저희 직원들을 위해 이렇게 마음 써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도법사 · 일산 기쁨정사 주지〉

社 說

돌아온 봉은사 일주문 환영

봉은사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일주문이 34년 만에 제 자리로 돌아왔다. 5월 29일 서울 봉은사 경내서 일주문 낙성식이 열린 것이다. 봉은사 일주문은 1880년대 조성된 것으로 1986년 진여문 불사과정서 양평 사나사로 이건됐다. 이어 2011년 양주 오봉산 석굴암으로 옮겨져 석굴암 불이문으로 역할을 해왔다.

이번 일주문 이건에는 아무런 조건없이 협조한 양주 오봉산 석굴암 주지 도일스님을 비롯해 봉은사 사부대중과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해당 교구본사인 봉선사의 원할한 협의과정이 있었다.

근현대 불교사를 보면 사찰은 수많은 변화를 겪었다. 억불숭유 속에 서원이 되거나 화마에 소실되고, 폐사에 이른 곳이 부지기수였다. 이런 사찰에서 전통가치를 지닌 수많은 문화재들이 사라지고 방치됐다. 사찰 이전과 문화재 수탈 속에 본래 있어야 할 사찰에 있지 못하고 세상을 떠도는 불교 문화재가 많음은 물론이다.

이번 봉은사 일주문은 이러한 불교 문화재가 제 자리를 찾기 까지 불자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잘 보여준다.

중앙부처와 해당 사찰간의 협조, 그리고 사찰 신도들끼리의 교류 등이 그 것이다. 봉은사 일주문은 보물급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특히 많은 외국인들과 시민들이 찾는 강남 봉은사역 사거리에 위치해 더욱 더 그 가치가 높다. 앞으로 불교 문화재가 저마다의 자리에서 제대로 보존 · 활용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봉은사 일주문이 그 첫 시작으로 자리할 것이다. 또한 도심 속 불교문화를 알릴 상징으로 불자들의 원력을 담아 더욱 더 활용되길 바란다.

민추본 창립 20주년에 부쳐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이하 민추본)가 창립한지 올해로 20년이 됐다. 민추본은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분단과 대결, 불신의 남북역사를 화합과 평화, 통일의 역사로 만들겠다는 서원으로 창립했다.

2000년 6월 8일,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된 창립법회에는 당대를 대표하는 선지식들이 자리해 마음을 보탰다. 불교계 통일운동은 사실상 전무하다시피 했던 시기, 조계종 민추본의 탄생은 민족 동질성 회복을 목적으로 한 새로운 대사회운동의 첫걸음이었다.

분단 이후 반세기가 지나면서 남과 북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서로 다른 체제로 심리적 거리는 멀어졌고 서로에 대한 편견도 깊어졌다. 남과 북의 거리감은 정치적으로는 쉽게 풀 수 없는 숙제였다. 그러나 남북 불교계의 만남은 조금 달랐다. 우리민족의 전통종교로서 남북 사람들의 뿌리깊은 동질성을 일깨웠다. 남북간 협력으로 금강산 신계사 복원 불사를 원만 회향할 수 있었던 근원에 바로 신심에 기반한 동질성이 있었다.

2008년 금강산 관광이 단절된 이후 이명박 ·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고 문재인 정부에도 경색국면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지난 10여년 대북교류가 소원해진데다, 종단 안팎의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민추본의 존재감도 희미해지는 등 위기를 겪고 있다.

남북간 정치상황은 언제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럼에도 민추본은 굳건한 조직, 준비된 조직으로 운영돼야 한다. 그래야 갑작스레 닥쳐올 평화의 물결 속 물꼬를 트는 마중물의 역할을 할수있기 때문이다. 민추본을 향한 종단과 불자들의 관심이 절실한 이유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스님들의 평안한 수행을 돕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스님들의 복지와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승려복지법 시행이 올해로 10년을 맞이했습니다. 그간 종단에서는 스님들께 의료비를 비롯 국민연금 등 각종 복지혜택을 드리기 위한 각종 제도를 도입해 정착시켜 왔습니다.

이와함께 2020년 7월부터는 향후 안정적인 승려복지제도 운영을 위해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제도를 시행합니다. 본인기본부담금'제도는 늘어나는 승려복지 재원확충 및 승가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추진되는 제도로 종단 스님들의 적극적인 동참바랍니다.

승려복지 지원 제도

지원 대상 구족계 수지 후 종단등록 사찰에 거주하고 **결계신고를 필한** 모든 스님(종단 미등록 사찰·법인의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스님은 제외)

지원 종류
- 입원진료비
- 노인장기요양급여비
- 국민건강보험료(일부지원)
- 국민연금보험료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제도
- 시행일시 : 2020년 7월부터(사전 선납 가능함)
- 납부대상 : 구족계를 수지한 모든 승려
- 납부금액 : 월 10,000원 / 월 5,000원(구족계 수지 5년 이하 - 2016년 이후 수지 : 2020년 기준)

승보공양 후원 동참 안내

승보공양 후원금은 위와 같이 스님들 의료비 등에 지원합니다. 승단을 외호하고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는 것은 불교의 오랜 전통입니다.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불자님들의 승보공양 동참으로 우리 스님들이 수행과 전법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앞당겨집니다.

승보공양 동참
- ARS후원 (전화 060-700-1077, 1통화 3,000원)
- CMS (자동이체)
- 계좌이체 후원
  - 농 협 301-0080-9225-91
  - 국민은행 023501-04-176129
  (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승려복지)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
• 전화 : 02-2011-1726~7, 1980~1 / 010-2926-1726 / 팩스 02-733-3603
• 주소: [03144]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
(※상세한 내용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승려복지) 참조)

옻칠로 넓힌 우리 민화와 불교

성파스님 통도사 옻칠민화 특별전
통도사 성보박물관 6월 28일까지



‘미륵존’ 등 옻칠민화 1백여 점 전시
‘옻칠 민화’ 우리민화 새 장르 개척
분채 · 석채와는 또 다른 조형세계
“한국 민화, 불교와의 연관성 깊어”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옻칠민화’라는 우리민화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성파 스님(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 왼쪽 사진)이 5월 29일부터 6월 28일까지 통도사성보박물관에서 ‘통도사 옻칠민화 특별전’을 개최한다. 전시에는 미륵존 등 옻칠민화 100여 점이 전시된다.

옻칠민화는 민화의 한국적인 이미지와 사찰의 옻칠문화를 결합시킨 새로운 장르다.

민화는 분채와 석채에서 시작됐지만 현재는 아크릴민화, 디지털민화 등 전통적인 매체에서 벗어나 다양해지고 있다. 옻칠을 이용한 새로운 장르의 옻칠민화는 칠화(漆畵)에 민화적 이미지를 올린 그림으로, 종이나 비단의 분채나 석채와는 또 다른 조형세계를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중후한 느낌과 촉감적 질감 등이 다른 민화와는 다른 느낌을 보여준다. 옻칠민화의 또 다른 장점은 여러 물질을 화폭 속에 담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옻칠은 다른 물질과의 결합성이 뛰어나 복합재료로 형성되는 입체적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전통민화의 이미지를 기본으로 하지만 스케일을 키우고 표현 매체를 달리함으로써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민화는 정통회화의 조류를 모방하여 생활공간의 장식을 위해 그린 그림이거나 또는 민속적인 관습에 따라 제작된 실용화를 말한다. 조선 후기에 서민층에서 유행했으며, 이규경(李圭景 · 1788~1865)의 〈오주연문장전산고〉에는 이를 속화(俗畵)라 하고, 여염집의 병풍 · 족자 · 벽에 붙인다고 했다.

성파 스님의 지론에 따르면 우리 민화는 불교미술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민화는 19세기 정조 사후 사찰경제가 심각하게 어려워지면서 시작됐다. 설 자리를 잃은 불모들이 절을 나와 그리기 시작한 그림이 민화의 시작이다. 그 후 민화가 전국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사찰의 불화 제작 시스템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민간에서 채색 안료를 쉽게 조달할 수 있는 곳은 사찰뿐이고, 민화의 주요 기능인 액막이와 길상의 기능이 불교의 축원 · 기복과 맥락을 같이했던 점, 그리고 사찰의 집단노동체제가 전국에서 일어난 민화의 수요를 해결할 수 있었던 점 등이 그 이유다.

전통사찰 전각에서 민화를 볼 수 있는데 통도사에도 민화가 그려진 전각이 많다. 특히 명부전의 경우 ‘사찰민화 박물관’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전각 안팎의 벽화에 불화보다 민화가 더 많이 그려져 있다. 여기서 시작된 민화의 붐은 해장보각, 용화전, 응진전 등으로 옮겨가며 벽화로 조성됐다. 이는 19세기에서 20세기 전반에 걸려 나타난 현상이다. 통도사와 같은 대가람에서 민화를 대폭 수용했다는 것 자체가 조선 말기 불교와 민화의 밀접한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성파 스님 作, 미륵존

성파 스님은 1960년 통도사에서 월하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통도사 강원을 졸업하고, 1970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문경 봉암사 태고선원 등 제방 선원에서 정진했다.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제5 · 8 · 9대 중앙종회의원, 총무원 교무부장, 사회부장을 역임했다. 통도사 서운암에 주석하며 28년간 민족통일의 원력을 담은 도자삼천불과 16만도자대장경을 조성했다. 옻칠불화, 민화, 서예, 천연염색 등 전통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2017년 옥관문화훈장을 수훈했다. 2018년 희귀병 소아암을 앓고 있는 어린이 환우들을 위해 5천만 원을 기부하는 것으로 통도사 방장 추대법회를 대신했다. 1983년 옻을 이용한 개인전을 처음 연 이후 국내외에서 전통 옻과 불교미술을 접목한 전시를 10여 차례 열었으며, 한국 고유의 전통미술을 계승한 민화, 특히 옻칠민화를 널리 알리고 있다. 현재 조계종 원로의원과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으로 수행정진하며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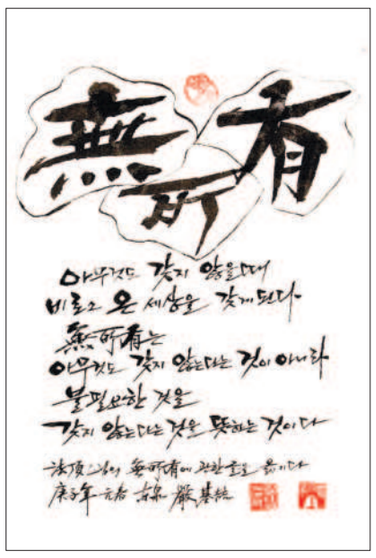
법정 스님 법문 작품으로 만난다

(사)맑고향기롭게 · 길상사,
5월 17일~6월 7일 전시회
엄기철 작가 작품 80여 점

무소유 가르침으로 세상을 맑힌 법정 스님의 향기로운 법문들이 서예 작품으로 대중과 만난다.

(사) 맑고향기롭게(이사장 덕조)와 길상사(주지 덕일)는 법정 스님 입적 10주기 추모행사의 일환으로 ‘법정 스님의 향기로운 글 & 금강경 모음 전’을 개최한다. 전시회는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을 전후한 5월27일부터 6월 7일까지 서울 길상사 설법전에서 진행된다.

이번 전시는 동천 엄기철 서예가가 법정 스님의 명문장을 발췌해 쓴 40여 점과 대승불교 근본경전 〈금강경〉의 경구 및 게송 20여 점, 반야심경 등 일반 작품 20여 점이 선보인다.



엄기철 作, 법정 스님 글 ‘무소유’

〈금강경〉 전문작가이자 추사체 연구가로 활동하는 엄기철 서예가는 이번 전시에서 새롭게 시도한 목간체 작품 등 여러 서체의 〈금강경〉을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12폭 족자에 담긴 11m규모의 추사체 작품을 비롯해, 한글로 풀어쓴 〈금강반야바라밀경〉 판본체(고체) 작품 등이 주목된다.

엄 서예가는 “평소 법정 스님의 책을 자주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그 가르침과 같이 집착을 끊어내고 무소유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되묻곤 한다”며 “법정 스님 가르침과 경전 구절이 인간다운 삶,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할 지혜와 용기를 주는 금과옥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맑고향기롭게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움츠러들고 힘들어하는 시기에, 법정 스님의 맑고 향기로운 말씀과 더불어 부처님의 위대한 말씀 〈금강경〉을 관람하며 혼탁한 세상을 이겨나가는데 큰 힘을 얻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맑고향기롭게는 법정 스님 입적 10주기 추모 문화 행사로 ‘무소유 낭독 음악회’ ‘법정 스님 열반 10주기 특별 좌담’을 계획했으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취소 및 연기했다. 올 하반기 ‘법정 스님 수행처 사진 공모전’과 ‘제4회 무소유 어린이 글짓기 대회’ 등을 이어갈 방침이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제5회 천태예술공모대전 작품 공모

10월 7~8일 접수, 불화 · 조각 등 4개 부문
11월 25~30일 동덕아트갤러리 시상 · 전시

천태종(총무원장 문덕)이 제5회 천태예술공모대전 작품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지난해까지 포함된 서예 · 문인화 부문을 제외한 불화(전통 · 현대), 조각, 공예, 민화 4개 분야의 작품을 공모한다. 작품은 10월 7~8일 서울 서초구 우면동 관문사로 접수하면 된다. 공모요강과 출품 원서는 6월부터 금강신문 홈페이지(ggbn.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불화는 200호 미만, 가로×세로 400㎝ 이하여야 하며, 표구된 완성작품만 접수할 수 있다. 조각은 높이 250㎝ 미만, 가로×세로 300㎝ 이하, 무게 500kg 미만이며, 조립한 완성품을 제출해야 한다. 민화는 높이 200호 미만, 가로×세로 400㎝ 이하여야 하며, 액자(유리 액자 제외) 제작 후 접수해야 한다.

대상 1명에는 상금 2,000만 원과 상장 · 상패, 최우수상(4명)에는 상금 각 300만 원과 상장 · 상패, 우수상(4명)에는 상금 각 100만 원과 상장 · 상패, 장려상(4명)에는 상금 각 30만 원과 상장 · 상패, 특선에는 상장 · 상품, 입선에는 상장, 특별상에는 상장 및 기념패를 수여한다. 심사결과는 금강신문 홈페이지에 게재 후, 개별 통보한다. 수상작 전시회는 11월 25~30일 서울 동덕아트갤러리에서 진행되며, 시상식은 전시회 기간 중 열린다.

박재완 기자

연등 및 불교용품들은 가까운 유명불교상점에서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가야기획

봉축현수막



※ 현수막의 색상은 본 카다로그의 색상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사현수막 제작
- 지하철 현수막
- 세로거치형 현수막
- 장엄번(만장기)
- 어깨띠 등 전문출력



광명연등



사이즈 3종
(대, 중, 소)

종이주름등



비닐만월등

색상 : 노랑, 초록, 빨강, 진분홍, 파랑



※ 연등 및 만월등 사찰 독판 만월등 접수 받습니다.

PVC 청사초롱등



봉축리본



집게형, 일반형

종이연잎연등



- 색상 : 진분홍, 연분홍, 노랑, 빨강, 백색
- 사이즈 : 10.5cm, 8cm

황금등



- 사이즈 : 20cm
13cm
10.5cm
8cm

가야연등



- 바람칼라연등 사이즈 : 20cm, 13cm, 10.5cm, 8cm, 6cm
- 자비연등 사이즈 : 13cm, 10.5cm, 8cm • 색상 : 진분홍, 보라, 연분홍, 주황, 적색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5/27~6/2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낡은 옷을 벗어라 : 법정스님 미출간 원고 68편 수록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6	숫타니파타 (빠알리대장경 / 쿳다까니까야)	전재성	한국빠알리성전협회
2	요가 디피카	현천스님	선요가	7	염불하여 왕생하고 왕생하여 성불하세 (순수한정토법문)	혜정 / 정전, 원왕생	운주사
3	밀린다왕의 물음 (수인총서2)	서정형	공감과소통	8	읽기만 해도 보리심이 샘 솟는 원빈스님의 천수경	원빈스님	이층버스
4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 선지식의 크신 사랑	김원수	청우당	9	한글 법보 염불집 : 삶속에서 독송해야 할 보배로운 가르침	원순스님	법공양
5	지금 이대로 좋다	법륜스님	정토출판	10	허공에 핀 꽃	원산스님	효림

책세상

청량의 〈화엄경소초〉 1200년 만에 완역 불사



청량국사화엄경소초-
화엄현담 1~10권
청량징관 찬술 / 관허수진 현토역주
운주사 펴냄 / 각권 2만원

방대한 〈화엄경소초〉 완역 첫걸음
100권 중 1차분 〈화엄현담〉 10권
번역문만 원고지 10만 매 분량
꼼꼼한 번역, 600개 상세 각주로
〈화엄경〉 핵심사상, '소초' 설명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청량국사(738~839)의 〈화엄경소초(대방광불화엄경수소연의초)〉는 80권 본 〈화엄경〉에 소(疏) 60권, 초(鈔) 90권을 붙인 방대한 분량에, 대소승의 경(經)과 논(論)은 물론이고 유가(儒家)와 노장(老莊)까지 종횡으로 넘나드는 상세하고 치밀한 해설을 붙여 가장 뛰어난 〈화엄경〉 주석서로 꼽힌다. 그럼에도 이제껏 그 완역본을 만날 수 없었던 것은 너무나 방대한 분량과 폭넓고 다양한 사상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역주서는 원문을 제외한 번역문만 원고지 10만 매에 달하는 방대한 작업으로 원문 현토와 함께 원문의 한 글자도 놓치지 않는 꼼꼼한 번역과 역대의 〈사기〉들을 총망라한 상세한 각주로 한국불교의 사상적 근간인 화엄사상을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 100권으로 기획하고 있으며, 1차분으로 〈화엄현담〉 10권을 우선 출간했다.

한국 불교는 화엄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한국불교사에서 화엄사상은 법화(천태)사상과 더불어 교학의 큰 축을 이루고 있기도 하거니와 한국 선의 바탕에는 화엄사상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량징관 스님은 그런 〈화엄경〉 연구에 가장 뛰어난 업적을 남긴 스님이라고 할 수 있다.



〈화엄경〉은 대승경전의 꽃, 대승경전의 최고봉으로 불리는 대표적인 대승불교경전이다. 중국과 우리나라에 소개된 이후 양국의 불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화엄경〉은 40권 본, 60권 본, 80권 본 세 가지가 있는데, 40권 본은 '입법계품'에 해당하므로 실제로는 60권 본과 80권 본 두 종류로 볼 수 있다.

청량징관 스님은 중국 화엄종의 제4조로, 화엄종은 초조인 두순으로부터 시작하여 2조 지엄, 3조 법장, 4조 징관, 5조 종밀로 이어진다. 해동화엄종의 초조로 일컬어지는 의상은 2조 지엄 아래서 수학했다. 청량 스님은 11세에 출가해 불교의 교학은 물론이고 외전인 유가와 노장의 경전까지 섭렵했으나 결국 〈화엄경〉에 귀착, 40세 부렵부터 102세에 열반할 때까지 무려 60여 년 생애를 〈화엄경〉 강의와 저술에 바쳤다. 저술만 42종 600여 권에 이를 정도로 〈화엄경〉 최고의 연구가라고 할 수 있다. 그 결정판이 바로 〈대방광불화엄경수소연의초(大方廣佛華嚴經隨疏演義鈔) · (화엄경소초, 청량소초)이다.

〈화엄경소초〉는 동양철학의 대백과전서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1200년 만에 그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번 역주서의 출간은 한국불교 교학사에서 큰일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역주서는 최초의 완역본인 만큼 역자의 의역을 배제하고 최대한 원문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려고 했다. 즉 원문의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옮기고자 했다. 따라서 현대적 어법에 다소 어색하게 읽힐 수도 있다.

각 권마다 600개가 넘게 붙은 상세한 각주가 이해를 돕는데, 이는 관련된 주요 〈사기〉들을 망라하여 옮긴 것으로, 단연 역주자의 노력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한국불교에서 〈화엄경〉이 가지는 역할과 위상은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다. 예로부터 불교전통강원(승가대학)에서 채택한 교과서로, 출가자는 누구나 공부해야 했다.

이 역주서가 한국불교의 사상적, 교학적 뿌리이자 수행과 실천의 토대인 〈화엄경〉 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화엄경소초〉가 워낙 설명이 폭넓고 자세하기 때문에 〈화엄경소초〉를 좀 더 알기 쉽게 정리해주는 일종의 안내도 겸 개론 성격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출간된 '화엄현담'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화엄경소초〉의 이해를 위한 일종의 '해제'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화엄경〉의 핵심 내용과 사상, '소초'의 체계 등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현담'은 화엄경과 화엄사상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불교교학과 중국불교 전반에 대한 이해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는 출가 후의 다양한 공부 이력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이번 〈현담〉은 〈화엄경소초〉를 이해하는 데는 물론이고 〈화엄경〉을 이해하는 데도 꼭 필요한 책이다.

관허수진(貫虛守眞) 스님〈왼쪽사진〉은 1971년 문성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74년 수계하고 해인사 강원과 금산사 화엄학림을 졸업했다. 운성, 운기 등 당대 강백 열 분에게 10년간 참문수학했다. 1984년부터 수선안거 10년을 성만하고, 1993년부터 7년간 해인사 강원 강주로 학인들을 지도했다.

조계종 교육위원, 역경위원, 교재편찬위원, 고시위원, 중앙종회의원, 범어사 율학승가대학원장 및 율주를 역임했다. 현재 부산 승학산 해인정사에 주석하면서, 조계종 단일계단 계단위원 · 존증아사리, 동명대학교 석좌교수, 동명대학교 세계선센터 선원장 등의 소임을 맡고 있다.

인간으로 바라본 '석가모니'



인간 석가모니를 만나다-
내가 본 석가모니불의 발자취
최종웅 지음 / 올리브그린 펴냄 / 2만원

"석가모니불은 신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중생들의 본래면목을 알리기 위하여 사바세계에 오신 것입니다."

책 〈인간 석가모니를 만나다〉는 석가모니부처님을 인간으로 바라본 일대기다. 부처가 된 인간 석가모니는 어떻게 살았을까.

부처님의 일대기에 관한 저술은 많다. 나라마다 글쓴이마다 각각 조금씩 다르다.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 때문일 것이다.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첫째는 싯다르타 태자의 이야기이다. 둘째는 출가 이후에 수행하는 보살의 이야기다. 셋째는 성불 이후 교화하는 부처로서의 이야기다. 각각의 글 사이사이에 비로자나불과 진각성존의 이야기도 조금씩 덧붙였다.

저자 최종웅은 1975년 대한불교진각종에 입문하여 스승의 길에 들어 유가 · 탑주 · 밀각 · 행원 · 지륜심인당 등에서 교화했다. 교육원장을 거쳐 유지재단 대표이사, 학교법인 회당학원 대표이사,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회당학회장 등 주요직을 거치고 제28대 통리원장을 역임했다.

박재완 기자

'스님이 쓴 금강산 유행기'



봉래일기
이면신 지음 / 이대형 이석환 하정수 옮김
올리브그린 펴냄 / 1만9천원

금강산은 고대부터 많은 설화의 배경이 되었고 문학과 예술의 소재가 되어왔다. 또한 다수의 명찰이 자리하고 있어 불가적인 이야기 역시 많은 산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금강산을 찾고 많은 기행문을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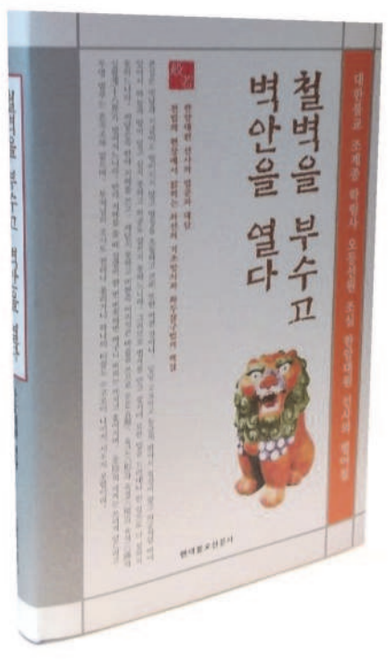
〈봉래일기〉는 계룡산 동학사에 주석했던 청운 이면신이 1894년 음력 3월부터 5월까지 충청도 모처를 출발해 금강산을 돌아본 일기 형식의 기행문이다.

본서의 원전인 〈봉래일기〉는 새로 발굴된 자료로서 유학자들의 금강산 유행기와는 다른 조선 후기 승려의 금강산 유행기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책은 여행의 출발에서부터 돌아오기까지 필자의 여행과정과 만났던 사람들, 그 속에서 느낀 심정을 당일의 날씨와 이동거리를 포함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적고 있다. 또한 여행 과정에서 여막이나 민가보다는 사찰을 중심으로 이동했다는 특징이 있고, 이동한 사찰의 연기설화와 풍광을 묘사하고 있으며, 금강산 유행기 중 유일하게 금강산 사찰 배치도를 그려 넣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박재완 기자

대대로 이어지는 마음의 등불, 그 황금의 맥을 가리켜 보이다



대한불교 조계종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한암대원 선사의 법어집

철벽을 부수고
벽안을 열다



본심은 옛날과 지금에도 떨어지지 않고 망정을 초월하고 견해 또한 여읜 것이니, 담담 고요하고 둥글게 밝아서 형상이 없고 허공처럼 비어 있어서 하늘과 땅이 덮고 싣지 못하고 허공도 삼키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법계를 안고 삼키며 묘한 법을 드러내니 한 입으로 다 설하지 못하느니라. 깨달은즉 반야 지혜를 쓰고, 깨닫지 못하고 미한즉 어리석은 마음을 쓰므로 오온, 육근과 육경과 육식의 십팔계가 벌어지느니라.
반야 지혜를 쓸 때 섬광이 한 번 번쩍하면 마구니 머리는 깨지고 흩어지며, 음의 세계는 쓰러져 엎드리고, 무명 범부는 흔적조차 없으며, 부처님과 조사도 천리나 물러가니 하나의 티끌도 수고로이 나에게 세우지 못함이라. —본문 중에서



한암대원閒庵大元 선사
1942년 경북 상주 출생. 1958년 상주 남장사로 출가하여 혼해 · 고봉 · 석릉 · 관응 · 호경 스님 등으로부터 일대시교를 이수한 후 혼해(混海) 스님으로부터 전강을 받음. 그 후 상원사 · 동화사 · 해인사 · 불국사 · 통도사 등 전국 제방선원에서 정진.
고암(古庵) 스님으로부터 전법.
1986년 옛 제석사 터에 학림사를 세우고 납자를 위한 오등선원과 일반 불자들을 위한 시민선방을 열어 현재 선불교 대중화에 진력.

일년 365일 죽비소리가 그칠 날이 없는 충남 공주의 학림사 오등선원. 하루도 빠짐없이 화두와 씨름하면서 '길 없는 길'을 찾아가는 공부인들에게 등불을 밝혀 길을 안내하는 오등선원 조실 한암대원 선사.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황금의 법맥을 따라 올라가면 석가 세존에까지 이르겠지만 푸른 지구의 동쪽 끝, 한반도의 오늘을 밝히고 있는 법맥 중에서도 계룡산 학림사 오등선원은 조실 스님으로 인하여 중요한 한 가지[技]를 차지한다. 스님은 "홀연히 잣나무 꼭대기에서 손을 놓고 한걸음 나아가라는 말을 듣고 / 확연히 의심 덩어리 녹아 깨달았네. / 밝은 달은 홀로 드러나고 맑은 바람은 새로운데 / 늠름히 비로자나 이마 위를 활보함이로다."라고 깨달음의 기쁨을 읊으셨다.

* 한암대원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350쪽 | 값 19,000원

현대불교신문사 서울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606호) 주문전화 042)825-1724, 02)2004-8253 학림사 오등선원 충남 공주시 반포면 제석골길 67 전화 042)825-1724

불기 2564(2020)년 부처님오신날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

휘몰아치는 여러분의 정보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IT PLUS + ONE
ELSWIVER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회원을 관리하는 모든 웹사이트의 보안서비스 개선
+ 시스템 보안관리
+ 서버운영 및 관리
+ 업무용 전산 시스템,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관리
+ PC 유지보수

http://www.elswiver.com http://www.itplusone.com
Venture for Tomorrow
Korean Venture Entrepreneurship

IT PLUS + ONE 으로 한번에 해결해 드립니다.

IT PLUS + ONE 은 (주) 엘스위버의 정보보안 및 전산 통합관리 서비스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ELSWIVER
IT PLUS + ONE

TEL : 070-4060-7460

©Copyright 2018 ELSWIVER co.Ltd. ALL RIGHT RESERVED

‘王家 러브 스토리’ 불상에 담다



이상근의
聖寶流轉

⑪ 용미리 쌍석불입상
해인사 쌍비로자나불



용미리석불 남녀 불상 구별해
‘1471년 왕후 왕생’ 기원 명문
평생 정희왕후만 사랑한 세조
둘의 愛史 담아 불상으로 조성

해인사의 쌍둥이 비로자나불
‘진성여왕 · 위홍의 불상’ 기록
친족이자 연인… 당시엔 가능



해인사 쌍비로자나불(사진 위)과 파주 용미리 쌍석불입상(사진 아래)의 모습. 해인사 비로자나불은 진성여왕과 그의 숙부 위홍의 사랑이, 용미리 석불은 세조와 정희왕후의 사랑이야기가 담겨있다.

사찰에는 어느 것 하나 허투루 있는 게 없다. 건물이나 조각은 물론이고 문양이나 그림에 있는 작은 조연들까지도 다 의미와 사연이 있다.

멀리 인도에서부터 그 의미를 잃지 않고 중국을 거쳐 이 땅까지 전해져온 이야기도 있고, 인도는 빼고 중앙아시아나 중국에서 잘 가공돼 이 땅으로 전해져온 이야기도 있다. 물론 이 땅에서 자생한 이야기도 우리 사찰에는 담겨 있다.

중국에서 넘어온 것 중에는 숫자와 관련된 것들이 많다. 탑이 대표적인데 팔각구층석탑처럼 수직(위)으로 1 · 3 · 5 · 7 · 9 · 13 등 양수를, 수평(옆면)으로 음수인 짝수를 쓴다. 음양오행이나 삼재(三才)사상이 녹아든 결과다. 가끔 10층탑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세히 보면 10층탑은 하단이 3, 상단이 7로 구성돼 있는 걸 알 수 있다.

불상을 법당에 모실 때도 마찬가지다. 홀로 모시거나 삼존불, 삼세불처럼 세 분을 모신다. 홀로 모셨을 때도 좌우에 협시는 짝수로 배치해 전체적으로 홀수를 유지한다. 가끔은 칠불을 모시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런 배치가 적용이 되지 않는 예들이 있다. 우선 문을 지키는 보살이나 신중을 배치할 때다. 좌우에서 지키고 가운데로는 지나가야 하니 피칠 못할 배치다. 경전에 근거해 조각하거나 그리는 때도 좌우 배치가 나타난다. 이불병좌가 대표적이다.

〈법화경〉 ‘견보탑품’에 나온 이야기를 그림이나 조각으로 형상화했는데 석가불과 다보불이 칠보탑 안에 ‘나란히’ 등장한다. 다른 예로는 관음 · 지장보살병립도(혹은 조각)이나 아미타불 · 지장보살병립도처럼 망자추선(亡者追善)을 목적으로 제작된 그림이나 조각이다. 중국 당나라 시대나 고려불화 등에 간혹 보인다. 이런 ‘특수 목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상 배치는 모두 홀수다. 하지만 역시 ‘예외’는 있다.

세조와 정희왕후의 사랑이야기

파주 혜음원지와 멀지 않은 용미리에 마애이불입상(磨崖二佛立像)이 있다. 커다란 바위에 몸체를 새기고 여기에 각각 머리를 올렸다. 한 분은 원형 삿갓(圓笠佛, 부처님이 서 계신 것을 기준으로 오른쪽 편)을 쓰고 있고 한 분은 사각형의 삿갓(方笠佛, 부처님이 서 계신 것을 기준으로 왼쪽 편)을 쓰고 있다. 불상의 성별을 구별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지만 사람들은 원형 삿갓을 쓰고 계신 부처님을 ‘남자’, 사각형 삿갓을 쓰고 계신 부처님을 ‘여자’로 부른다. 듣고 다시 보면 실제 그렇게 보이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불상이 조각된 시대를 ‘고려시대’로 추정했다. 실제 ‘전설’도 이를 방증했다. 고려 선종(재위 1083~1094)이 자식이 없어 셋째 부인(원신궁주)까지 맞이했으나 여전히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이때 궁주의 꿈에 두 도승이 나타나 “우리는 장지산 남쪽 기슭에 있는 바위틈에 사는 사람인데 배가 매우 고프니 먹을 것을 달라”고 했다. 꿈에서 깬 궁주가 이 내용을 왕에게 아뢰었고 이에 왕이 사람을 보내 살펴보니 장지산에 큰 바위 둘이 나란히 서 있었다고 한다. 왕이 즉시 이 바위에 두 불상을 새기고 절을 지어 불공을 드리니 그 해에 궁주에게 태기가 있었다.

전설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 ‘전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전이 생겼다. 1995년 석불입상 앞쪽에서 200여 자의 명문이 발견된 것이다. 희미해 모든 글자가 판독되지는 않았지만 ‘성화(成化) 7년’이라는 글자 그리고 세조와 그 비인 정희왕후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되었다. 우선 성화 7년은 1471년, 조선 성종 2년에 해당한다. 가끔 용미리 불상을 소개하며 ‘세조와 정희왕후의 극락왕생을 빌기 위해’라는 글들이 보이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희왕후는 1483년 사망했다. 죽기 전에 극락왕생을 빌었다는 말인데, 말이 안 되지는 않지만 흔하지는 않은 경우다. 그보다는 세조와 정희왕후의 러브스토리 그리고 정희왕후의 불교 후원을 살펴보는 게 더 설득력 있는 얘기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조는 잔인한 사람이다. 조카를 죽이고 왕위에 올랐고 한명회가 기획한 살생부 작성을 용인한 사람이다. 하지만 그의 개인사 곳곳에는 의외의 면도 자주 발견된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정희왕후와의 사랑이다. 세조에게 정희왕후는 첫사랑이자 끝사랑이었다. 비록 신하들의 등쌀에 후궁을 한 명 들이기는 했지만 조선 역사를 통틀어 한 명의 후궁은 흔하지 않은 일이었다. 나들이 때는 꼭 정희왕후와 동반했으며 사냥터에도 데려갔다고 한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 말년 세조의 호불(護佛)도 유명하지만 정희왕후의 호불 역시 남달랐다. 세조의 아들 예종 때 상원사 토지 문제로 신하들이 문제를 삼자 반대로 “강릉부(江陵府) 산산 제언(蒜山提堰)을 상원사(上元寺)에 주고, 또 잡역(雜役)과 염분세(鹽盆稅)를 면제해 주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정희왕후의 작품이었다. 이밖에도 정희왕후의 불교 후원은 손자 성종이 왕위에 올라 수렴청정을 할 때도 끊임이 없었다.

이런 전후 사정을 감안하면 용미리 석불이 세조와 정희왕후의 모습이라는 주장에 힘이 될 수도 있다.

또 하나, 앞에서 얘기했지만 불상을 쌍으로 세우는 예는 거의 없다. 어디어디에서 쌍으로 발견된 불상이 있다고 해서 살펴보면 어떤 불상의 좌우협시가 발견된 예들이 대부분이다. 하나의 힌트가 더 있다. 사람들이 둥근 갓을 쓴 미륵은 남자 미륵, 네모 갓을 쓴 미륵은 여자 미륵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음양으로 따져도 하늘, 남자 등을 뜻하는 모양은 동그라미고, 땅, 여자를 뜻하는 모양은 네모다. 갓으로 남자와 여자를 표현했을 가능성이 높다. 굳이 남자와 여자를 표현했다면 스토리텔링 상으로는 두 승려보다는 세조와 정희왕후인 남녀가 맞을 것이다.

기법으로 시대를 추정하는 것에 많은 일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기법에 속아 또한 연대 측정을 잘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 역시 엄연한 사실이다. 꿈 이야기보다는 세조와 정희왕후의 러브스토리에 한 표를 주고 싶다.

그런데 이런 러브스토리로 또 예외를 만든 불상이 한 쌍 더 있다. 바로 해인사 쌍비로자나불이다.

진성여왕과 위홍의 사랑이야기

해인사 중심 법당은 대적광전이다. 법당의 이름에 걸맞게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시고 있다. 원래 해인사 것이 아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해인사 대적광전에 자리했고 좌우에 문수 · 보현보살이 협시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비로자나불과 문수 · 보현보살 사이에 각각 비로자나불과 지장보살 그리고 문수, 보현보살 좌우측에 각각 관음보살과 법기보살을 모셨다는 것이다.

흔하지는 않지만 여하튼 홀수를 유지하고 있다. 불상의 배치는 다르지만 칠불을 모신 법당은 심심치 않게 있다. 오히려 해인사에서 가장 특이한 불상 배치는 대적광전이 아니라 대적광전 우측, 그러니깐 원래 명부전, 응진전, 독성각이 있던 자리에 지난 2007년 낙성된 대비로전에 있다. 이곳에도 비로자나불을 모셨는데 모두 두 분이다. 좌우의 모습도 똑같다.

이런 배치에는 나름의 ‘사연’이 있다.

지난 2005년 대장경판전의 법보전에 모셨던 비로자나불의 개금불사를 위해 복장 유물을 개봉하는 과정에서 연기문이 발견된 것이다. 연기문에는 두 불상이 ‘대각간과 비(妃)의 부처님이며 중화3년(883년) 계묘년 여름 금칠을 하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신라 시대는 세 명의 여왕이 있었다. 그 중에 통일신라 시기 여왕은 진성여왕 한 명이다. 진성여왕은 왕이 되기 전 숙부인 위홍과 사랑하는 사이였다. 지금의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신라 그리고 고려 초까지는 ‘가능한’ 이야기였다. 진성여왕의 재위 기간이 887년부터 897년까지였고 불상이 만들어진 것이 883년이니 아마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각별했던 두 사람의 사랑을 발원하기 위해 만들었던 불상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사랑에도 끝이 있는 법. 위홍은 진성여왕 즉위 2년에 세상을 떠나고 만다. 공교롭게도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는 이때부터 나라가 몹시 혼란스러웠다고 기록하고 있다. 연인과의 사별의 슬픔을 이기지 못해 정치할 의욕마저 꺾였으리라. 결국 계속된 혼란에 진성여왕은 다른 이에게 선위(禪位)하고 물러난다. 진성여왕은 선위한 그해 12월에 세상을 떠나고 마는데 그와 위홍의 사랑 이야기는 해인사의 암자인 원당암에도 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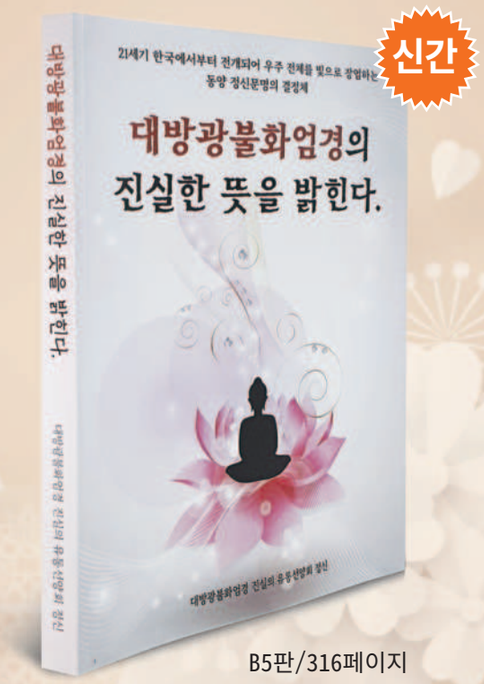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종교 건축은 예외를 잘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딜 가도 구조와 형식이 비슷한 경우가 많다. 다만 흔치 않은 이형들이 있으니 그곳에는 대개 ‘이야기’가 끼어든다. 저 불상들처럼.

〈불광출판사 편집주간〉

불기2564(2020)년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 부처님오신날

신도중심의 기도성취도량
대한불교조계종
향 림 사
주 지 수월 혜향
신도회장 백련화
사부대중일동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로557번길 27
062)263-3180

(사)대한불교청년회
(KYBA)부산지구
회 장 무주행 김진희
부회장 법원 배종영
부회장 박 민
회원일동
행정안전부 공모지원사업
제2기 사찰문화해설사 수강생 모집
(6월20일까지)
상담 010-7611-2414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 37 3층

초발심자가 한생에 성불 할 수 있는
화엄경 해석의 결정판!!!


B5판/316페이지
문의전화 : H·P 010-7131-7084
대방광불화엄경 진실의 유통선양회

깨닫고 닦음에 완성이 없다



변택주의
다시 읽는 法頂 스님
⑪ 깨달음과 닦음 ①

“깨달음과 닦음에 완성이 있을 수 있을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제품이라면 완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신세계에 있어서 완성이란 우리가 두고두고 들이 캐야 할 이상이지 현실은 아니다.”

1990년 절집 안에서 돈오돈수가 옳으니 돈오점수가 맞느니 하며 입씨름이 한창일 때 법정 스님이 ‘깨달음과 닦음’이라는 제목을 가진 글에서 남긴 말씀이다.

1981년 성철 스님이 〈선문정로〉를 펴내면서 돈오점수가 “틀렸다!” 외치면서 이른바 돈점 논쟁이 불붙는다. 성철 스님은 돈오점수는 알음알이(知解)로 지어낸 잘못된 수행이론으로 깨달음을 이끌지 못할 뿐 아니라 외려 걸림돌이 된다면서 돈오점수 사상을 따르는 이는 다 지해종도이며 이단사설에 홀린 사람들이라고 드잡이한다. 깨침과 닦음이 점차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완성된다는 말씀으로, 헤아려 알고(解悟) 나서 닦는다(漸修)는 것은 뚜렷이 아는데(證悟) 이르지 못할 뿐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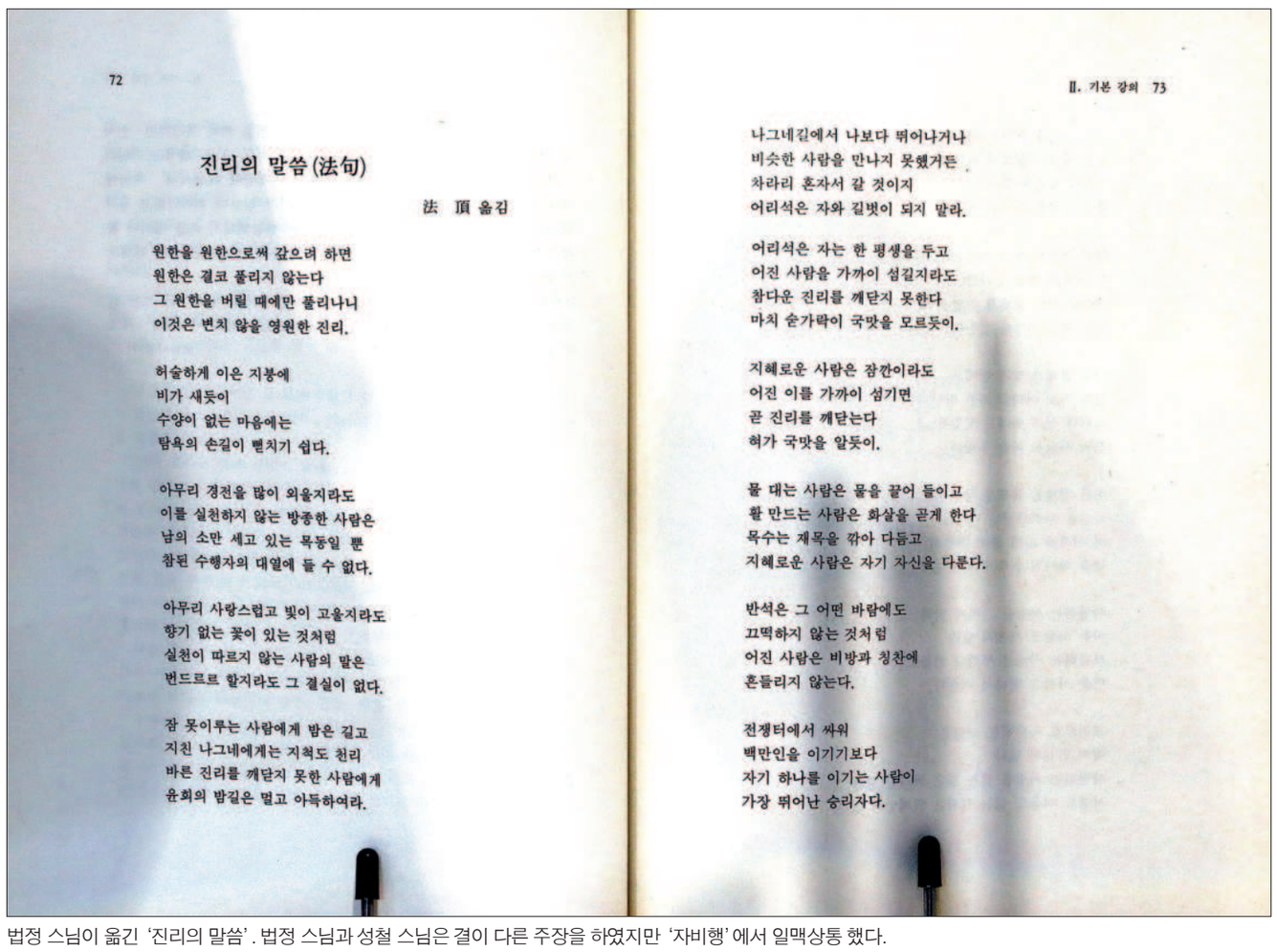
1987년 보조사상연구원 초대 연구원장을 맡은 스승은 〈보조사상〉 창간호 머리말에서 돈오점수를 이렇게 말씀한다.

“교단 일각에서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아직도 보조의 돈오점수 사상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의견이 없지 않지만, 종교 근본은 공허한 말끝에 있지 않고 투철한 체험과 실지 행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불타 석가모니가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은 돈오이고, 45년 동안 많은 중생을 제도한 일은 점수에 해당한다. 이것이 또한 불교 두 날개인 지혜와 자비의 길이다.

깨달은 다음에 하는 수행은 오염을 막을 뿐 아니라 온갖 행을 두루 닦아 스스로와 이웃을 함께 구제하는 일이다.

보조 스님은 〈절요사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요즘 선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흔히 말하기를 불성을 바로 깨달으면 이타의 원이 저절로 가득 채워진다고 하지만 나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불성을 바로 깨달으면 중생과 부처가 평등하여 나와 너의 차이가 없어진다. 이때 비원을 발하지 않으면 적정에 갇힐 염려가 있다. 그러므로 화엄론에 이르기를 지성(智性)은 정하므로 원으로써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깨닫기 전에는 비록 뜻은 있어도 역량이 달려 그 원이 이루어지기 어렵지만 깨달은 다음에는 차별지로써 중생의 괴로움을 보고 대비원을 발하여 힘과 분수를 따라 보살도를 닦으면, 깨달음과 행이 가득 채워질 것이니 어찌 기쁜 일이 아닌가’



법정 스님이 옮긴 ‘진리의 말씀’. 법정 스님과 성철 스님은 결이 다른 주장을 하였지만 ‘자비행’에서 일맥상통 했다.

여기에서 우리는 돈오점수를 자신 형성과 중생 구제로 풀이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알아야 바로 행할 수 있고, 그런 행의 완성이야말로 온전한 해탈이요 열반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불교가 요즘엔 초기 불교와 석가모니부처님 가르침을 내세워 불교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까지만 해도 대승불교를 내걸며 선불교를 으뜸으로 꼽았던 한국불교에서 나눈 가르침은 대부분 달마 스님을 비롯한 중국 조사들 이야기였다. 그러나 스승은 일찍부터 석가모니부처님 말씀을 줄기로 세워, 〈화엄경〉을 바탕에 두고 가르침을 펼쳤다. 그런 스승이기에 깨달은(돈오) 부처님이 50년 세월을 이 마을 저 마을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널리 사랑을 펼쳤다(점수)고 푼 것이다. 스승은 ‘깨달음과 닦음’에서 거듭 말씀한다.

“한꺼번에 단박 깨닫고 단박 닦는다, 또는 더 닦을 것이 없는 깨달음. 말은 그럴듯하지만 이와 같은 주장은 삶의 진실에서 벗어나 있다. 불교란 더 말할 것도 없이 부처님 가르침이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깨달음과 닦음으로써, 또는 지혜와 자비로써 몸소 부처를 이루는 길이다.

교조 불타 석가모니가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도 그전이나 다름없이 한결같이 닦음에 게으르지 않았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닦음을 어떻게 일시에 마칠 수 있단 말인가. 닦음(수행)이란 말 자체가 어느 한때 한꺼번에 해마치는 것이 아니라, 거듭거듭 익히고 행함으로써 무한히 형성되어가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또 무수한 세월 속에서 그 사람이 지은 업은 그만두고라도, 종교 기능인 사회를 아우르는 의무와 나누어 가짐에도 끝이 없는데 수행 완성을 어떻게 일시에 이룰 수 있겠는가.”

> **닦음은 ‘거듭 행함’ 의미**
> **자비실천행은 끝이 없다**
> **마음을 닦아 자성 성불을**

스승과 성철 스님은 깨닫고 닦음을 받아들이는 결이 이토록 달랐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철 스님은 돈오돈수 사상을 담은 〈선문정로〉를 펴내면서 이토록 결이 다른 스승에게 원고를 다듬어 달라면서 상좌 원택 스님을 스승에게 보낸다. 스승은 “스님께서 소중한 책을 내게 보라고 보내셨으니, 어미 하나까지도 어른 성격을 드러내는 부분이니까 내 글처럼 쉽사리 고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고는 원택 스님과 같이 두 달을 넘기며 글 다듬기를 마친다. 출간을 앞두고 스승은 원택 스님에게 이런 말씀을 한다.

“불교 출판계가 제자리를 잡지 못하는 까닭은 법공양 때문이다. 아무리 훌륭한 스님 책이라도 값을 매겨서 시중에 내지 않고 법공양만 하고 마니까 책이 나와도 절 안에서만 돌다가 이내 사라지고 만다. 그러나 정가를 붙여서 내면 잘 팔리면 십 년이고 백 년이고 팔리는 날까지 그 책이 살아남아 있지 않으냐. 그러니 성철 스님께 말씀드려서 법공양을 하지 말고 시중서점에 내놓아 팔도록 하라.”

당시 불교 출판계에서는 부처님이 펴신 가르침이 담긴 책을 돈 받고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불문율이었다. 원택 스님은 값을 매겨 내놓도록 하자는 말씀을 듣고 “부처님 가르침을 담은 책은 내돈 들여 찍어 나눠주는 것”이라며 역정을 내는 성철 스님에게 여러 차례 간곡히 말씀드려 〈선문정로〉을 시중서점에 내놓는다.

어떻게 스승은 당신 뜻과 결이 다른 이 책이 널리 퍼지도록 법공양을 하지 말고 값을 매겨 내놓으라고 말씀할 수 있었을까.

스승이 열반에 드시고 나서 원택 스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른들은 품이 다르면서도 같다고 생각했다. ‘다름’과 ‘닮은’은 본디 한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낱말이다. 같은 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것을 보고 틈이 벌어졌다고 여기는 이는 다르다고 하고, 가까이 있다고 보는 이는 닮았다고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두 어른이 품은 결은 아주 다를까?

나는 성철 스님이 어떤 데 뜻을 두고 ‘돈오돈수’를 말씀하셨는지 알지 못한다. 뵌 적도 없고 공부도 모자라다. 그러나 성철 스님이 스승과 나눈 이야기를 담은 〈설전〉에 나오는 말씀을 바탕으로 다가서 본다.

성철 스님이 1967년 백일법문을 하실 때 스승은 성불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고 묻는다. 성철 스님은 “과거 · 현재 · 미래의 삼세 모든 부처님과 역대 조사 모두가 자기 마음을 깨쳐서 성불하여 부처가 되었지, 언어와 문자에 의지해서 도를 얻은 사람은 단 한 분도 없다. 밥 이야기를 아무리 해봤자 배가 부르지 않고 밥을 먹어야 하듯이, 스스로 마음을 닦아서 자성을 깨쳐야 성불할 수 있지 언어와 문자로는 성불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한다. 그러면 〈팔만대장경〉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되묻는 스승에게 성철 스님은 금강산이 아무리 좋기로 그것을 알리는 것이 없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금강산이 좋은 줄 알겠느냐? 〈팔만대장경〉은 그와 같은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팔만대장경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은 것이니 대장경에 매이지 말고 스스로 자성을 깨쳐야 한다고 말씀한다. 아울러 “오직 우리 불교라는 것은 자성을 깨친 데서 자기의 이익이 있고(자리) 자성을 깨친 그것을 가지고 실제로 남에게 이익을 크게 주었다는 것(자타)이다. 언어와 문자는 실제로 이익을 주기 어렵고 중생제도를 잘할 수 없으니 자기 마음을 깨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한다.

스승은 1982년 성철 스님과 대담에서 〈선문정로〉 출간에 힘입어 우리나라 선문에 바른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고 덕담을 나누면서 젊은이들이 어떤 책을 읽으면 좋겠느냐고 여쭌다. 성철 스님은 〈화엄경〉 ‘보현행원품’은 “일체가 다 절대이니 거기서 모든 상대를 부처님같이 섬기자, 스승같이, 부모님같이 모시자고, 그래서 자기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오직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참으로 거룩한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젊은이들이 읽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아울러 “우리 불교에는 ‘구원’이란 없다. 구원이란 불쌍하고 못난 사람을 구한다는 말이 아니냐? 불공이란 저쪽이 부처님이기에 드리는 것이다. 아버지가 배고픈데 불쌍해서 밥을 가져다준다면 큰일 날 소리”라고 하면서 “절은 불공을 가르치는 곳이지 불공하는 곳이 아니다. 탁자에 앉아 있는 부처님은 모든 존재가 본래 부처라는 것을 가르쳐서 모든 존재를 부처님으로 모시도록 (불공을) 가르치고 있다”라 말씀한다.

스승도 저만 아는 남편과 이혼하겠다며 찾아온 어느 부인에게 “마음이니 부처이니 중생이니 하지만 뿌리로 들어가 보면 다르지 않다. 그러니 부처와 보살을 밖에서 만나려 말고 집안으로 불러들여야 한다. 그렇게 하면 시들해진 사이가 새로운 활기로 채워진다.”라고 말씀한다.

두 스승이 나눠준 말씀은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 그런데 어째서 이토록 가까운 두 어른 결이 어째서 깨달음과 닦음에서는 그토록 멀리 서 계실까? 〈계속〉

〈법정 스님 눈길〉 저자



밀랍초

(주)선우아이비오에서는 우수성이 이미 널리 알려진 천연 밀랍 양초, 소이 양초를 개발, 유통중에 있습니다.
소량의 밀납 성분이 함유된 이름만 밀납양초가 아닌 천연 밀랍 100% 로 만든 티라이트 양초, 자캔들(유리병초), 연꽃초와 향료, 색소 등을 일체 첨가하지 않고 천연밀랍과 파라핀을 혼합한 원기둥, 밀대 등을 개발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선우아이비오 |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141 (쌍문동) | TEL .02)998-7940
선우몰 www.sunwoomall.co.kr | sunwooibo@hanmail.net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상담(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라이브 방송
페이스북 | 매주 수요일 밤 10-11시

여래장 결합해 심화 발전한 불성론



현견 스님의
중국 선 문화기행 Ⅱ

⑪ 불성론과 여래장 및 법신설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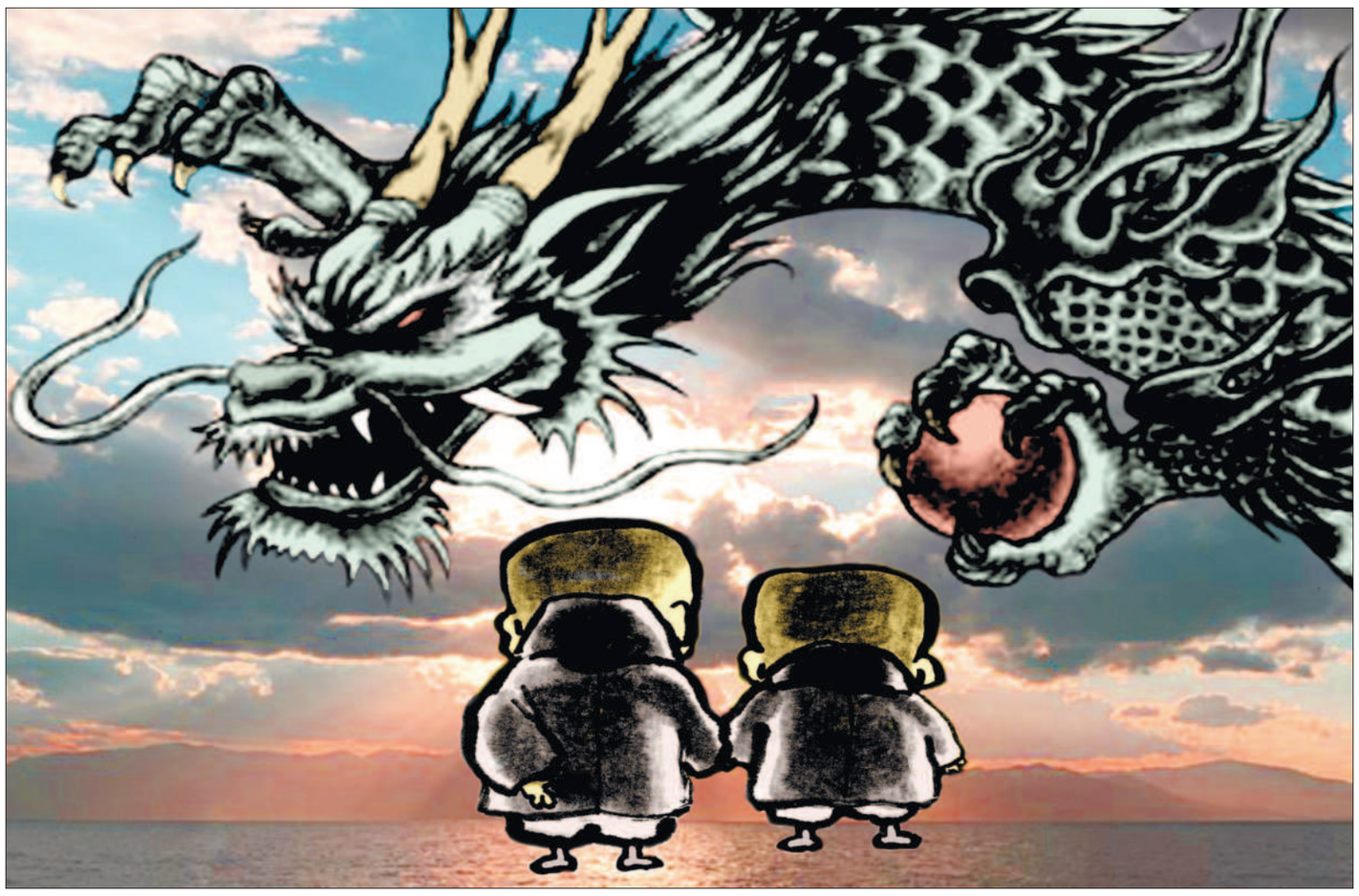


그림 · 강병호

중기대승불교가 흥기한 후에 불성론은 크게 발전했다. 이 시기에 출현한 대승경전은 여래장사상을 결합해서 불성론 사상을 더욱더 심화해서 발전해갔다. '여래장'에 대한 해석은 매우 많다. 기본적인 의미로서 여래장은 일체중생이 모두 본래 청정한 여래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불성론이 청정한 본성[自性]을 성불의 목적으로 보았다면 여래장사상은 불성론과 결합한 청정법신을 성불의 근원으로 삼았다.

〈승만보굴(勝鬘寶窟)〉에 보면 일체중생의 불성을 3종류로 분류해서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자성주불성(自性住佛性)으로, 중생이 선천적으로 구비하고 있는 불성이다. 선천적으로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자성(自性)이 상주한다고 한다. 두 번째는 인출불성(引出佛性)으로, 수행을 통한 선정지혜의 계발로 얻어지는 불성이다. 세 번째는 지득불성(至得佛性)으로, 수행을 통해서 원만한 과를 증득해서 나타나는 불성이다." 이외도 〈법화경〉 〈화엄경〉 등에서도 불성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법화경〉 관점에서 불성은 불지견이다. 즉 '상불경보살'이 항상 일체중생에게 예배하는 것은 모든 중생이 언젠가는 모두 성불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졌기 때문에 취하는 행동이다. 이 점이 바로 불성이 있다는 의미의 표현이다. 또 〈법화경〉 '여래수량품'에서 불타의 수명에 관해서 말하기를 "여래수명이 장원(長遠)할 때 육백팔십만억나유타항사성중생이 무생법인(無生法忍)을 얻는다…."고 하였는데, 이것도 역시 부처님의 법신불멸 및 본성의 초월성에 대한 설명이고,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 불성론 및 여래장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대승경전은 위의 내용과 상반되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즉 일체중생이 모두 불성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선근(善根)'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리 수행을 해도 성불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해심밀경〉 '무자성상품'에서 "유정세계 가운데는 여러 종류의 종성(宗姓) 차별이 존재한다. 따라서 각각 사람들의 근기 또한 같지 않으며, 근기 중에는 이근(利根), 둔근(鈍根 · 선근이 부족한자)이 존재하기도 한다. 비록 불타께서 여러 가지의 방편을 사용해서 둔근자(鈍根者)를 인도하고 교화하지만, 결국 이 둔근자들은 무상보리 무상정각을 획득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이 하열한 근기의 소유자들은 불성을 구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불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승경전 가운데 〈해심밀경〉 이외도 〈유가사지론〉 등에서 모두 같은 주장을 펼친다.

인도의 유가행파는 불성에 관해서 오종성(五種性)을 주장했다. 유가행파는 인도에서 4~5세기에 흥기한 대승불교의 교파로서 유가유식학파이다. 즉 대승중관학 다음으로 생겨난 학파이다. 이 학파는 세계의 본원은 심식(心識)이라는 관점이다. 세계의 만물은 모두 심식의 변현(變現 · 唯識無境)이라는 것이다. 이과가 불성을 보는 문제에 있어서, 일체중생이 선천적으로 본성을 구비하고 있거나 혹은 구비하지 못한 상태를 다섯 종류로 분류하였다. ①성문종성(聲聞種性), ②연각종성(緣覺種性:獨覺宗性), ③보살종성(菩薩種性:如來宗性), ④불정종성(不定種性), ⑤무종성(無種性)이다. 여기서 앞의 3종류인 정성성문(定性聲聞), 정성독각(定性獨覺), 정성보살(定性菩薩)은 통칭 '삼승(三乘)'이라고 한다. 이 삼승은 열심히 수행을 하면 아라한과 내지 벽지불 불과(佛果) 등과 상응하는 과위를 증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비록 불정종성(不定種性)은 삼승의 종자를 구비하고 있지만, 최종의 과위를 정할 수 없다고 한다. 다만 완전히 개인의 수행 정도에 의거해서 결정이 된다고 한다. 무종성(無種性)은 또 무성유정(無性有情)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이 종류의 중생은 선근 종자가 끊어진 상태로서 영원히 생사고해에 침륜해서 도저히 성불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유가행파의 오종성설(五種性說)은 아마도 당시 인도사회가 계급사회로서 이러한 사회적 형태가 직 · 간접으로 불교교의에 반영된 것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유가행파의 관점이라면 중생의 종성은 아뢰야식의 종자로 인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천성적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노력과 수행을 하더라도 자기의 운명을 도저히 바꿀 수 없다는 결론이다. 물론 반대로 〈열반경〉에서는 일천제(一闡提)조차도 성불할 수 있다고 적고 있기는 하다. 유가행파의 오종성설(五種性說)은 당나라 현장법사가 중국에 번역해서 소개가 되면서 중국 법상종의 기본적인 이론이 되기도 했다. 사실 현장법사가 인도의 구법여행을 떠난 것도 '불성은 본유(本有)인가, 시유(始有)인가'에 대한 의문을 풀고자 하는 의지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어서 중국에서 불성론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위진 남북조 시기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위진 시기에 반야론이 유행을 했다면, 남북조 시기에는 불성론이 유행을 했다. 이 형태는 인도에서 반야중관학이 먼저 발전을 하였고, 이어서 유가행파가 발전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즉 중관파가 반야공성을 본질로 보았다면 유가유식파의 본질은 아뢰야식이라고 할 수 있다(아뢰야식은 두 가지의 관점이 있다).

> **'불성론'을 부정하는 경전도 보여**
> **유가행파 '오종성'으로 불성 분류**
> **위진은 반야론 · 남북조는 불성론**
> **불성과 여래장 의미는 대동소이**

중기대승불교시기에 여래장사상에 관련된 경전이 많이 찬술되었는데, 사실 여래장이라는 단어가 최초를 나타난 곳은 〈증일아함경(增壹阿含經)〉. 서품이다. 즉 "..,문득 여래장으로 총지를 삼으면, 비록 금생에 몸의 번뇌를 다하지 못하더라도, 후생에는 문득 높은 재능과 지혜를 얻는다"고 했다. 그 의미를 살펴보면 불성과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앙굴마라경〉에서는 여래장이라는 단어가 집중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이 경에서는 불성이라는 단어도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뜻은 거의 불성의 의미와 대동소이하다.

여래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 및 특성에 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다. 〈앙굴마라경〉에서 보면, 불성과 마찬가지로 "여래장은 있으되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다(有如來藏而眼不見)"고 했으며, 또 "여래장에 무슨 뜻이 있는가? 만약에 일체 중생에게 모두 여래장이 있다면, (그것은)곧 일체 중생이 모두 다 부처를 이룰 수 있다.(如來藏者有何義, 若一切眾生悉有如來藏者, 一切眾生皆當作佛)"는 것이며 "여래장의 뜻은 자성청정(自性淸淨)의 뜻이다"고 했다. 이러한 의미들은 모두 "불성론"과 일맥상통하는 내용들이다. 또 "여래장 얻기는 지극히 어렵다"고 하면서, "무량한 번뇌에 덮인 바가 되어서 모든 악업을 짓고, 자성심이 여래장인줄 모르고 무량한 번뇌에 들어간다"고 하였다. 또 "아(我)라는 것은 곧 여래장의 뜻이다. 일체중생이 불성이 있다는 뜻은 곧 我의 뜻이다. 이와 같이 我의 뜻은 본래부터 이미 무량한 번뇌에 덮여 있기 때문에 중생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다"고 했다. 여기서도 여래장과 불성이 동일한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아(我)가 무량한 번뇌에 덮여 있다"는 의미는 초기부파불교에서 주장했던 심성본정, 객진소염(心性本淨, 客塵所染)과도 맥을 같이 한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여래장의 의미 및 속성은 거의 불성과 대동소이한 내용들이다. 그래서 초기대승불교에서는 여래장과 불성을 그렇게 정확하게 구분지어서 사용하지 않았다. 다만 사용하는 각도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면 불성이 비인비과(非因非果)의 각도에서 출발했다면 여래장은 비염비정(非染非淨)의 각도에서 출발한 점이다. 여래장에는 또 '여래장은 선불선인(如來之藏是善不善因故)'의 뜻과 '공여래장 불공여래장'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들이 처음부터 사용되었던 것은 아니고, 후대의 대승경전이 편찬되면서 보완과 보충을 한 내용들이다.

이외도 여래장을 집중적으로 다룬 대승경전이 다수가 존재하는데, 〈금강삼매경〉, 〈대보적경〉, 〈승만사자후일승대방편방광경〉, 〈대방등여래장경〉, 〈대방등여래장경〉, 〈대법고경〉, 〈능가경〉, 〈능엄경〉등이 있으며 논장으로는 〈구경일승보성론〉, 〈석마가연론〉, 〈금강삼매경론〉 등이 있고 중국에서 찬술한 주석로서 〈승만보굴〉,〈대승법계무차별론소〉, 〈대방광불화엄경수소연의초〉 〈대방광불화엄경소〉 〈묘법연화경현의〉, 〈대반열반경의기〉 ,〈능가아발다라보경주해〉, 〈주대승입릉가경〉, 〈대방광원각수다나료의경약소〉, 〈수릉엄의소주경〉, 〈대승법계무차별론소〉, 〈대승기신론별기〉, 〈기신론소필삭기〉 원효소인 〈기신론소〉 등이 여래장에 대해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경론과 주석서들이다.

이러한 불성론 및 여래장 사상은 중국선종에 다양한 개념으로 용해되어서 수행의 방편이 되었다. 예를 들면 대혜종고가 간화선에서 무심의 상태를 진여불성자리로 보았다면, 조동종의 청동굉지의 묵조선은 본증묘각을 현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명칭은 다르지만, 모두 불성(여래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선종에서 자주 사용한 용어 가운데 심지심성(心地心性) 등과 같은 의미이다. 〈동국대 강사〉

흉몽을 길몽으로 바꾸며 풍요와 복덕을 얻게하는 귀한 선물

천수경(千手經) 액자

인쇄물이 아니라 한 자 한 자 정성을 들여 모필로 써서 만든 것입니다.
붉은 비단에 금색원형으로 천수경을 적어 조형미와 더불어 품격까지 느껴져
주지스님 방이나 거실, 사무실 벽에 걸어놓기에 안성맞춤입니다.



· 작품크기 : 가로 45cm × 세로 45cm
· 바닥재질 : 비단(한지로 배접)
· 구입대상 : 스님, 신도님

천수경이란

천수경(千手經)은 관세음보살의 6번화신 중 하나인 천수천안관세음보살을 신앙하는 경전이다. 천수다라니는 특히 티벳과, 네팔, 인도, 파키스탄은 물론 중국에 걸쳐 여러가지 이본(異本)들이 있는데 그 체제와 내용에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다라니의 내용도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송되고 있는 천수경은 가범달마(伽梵達摩)역의 (천수천안관세음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심대다라니경)을 모태로 한 것인데 우리말로 풀어쓰면 한량없는 손과 눈을 가지신 관세음보살님의 넓고 크고 걸림없는 대자비심을 간직한 큰 다라니경인데 천수다라니를 정성드려 모시거나 수지 독송하고 지키면 시방세계의 모든 불보살이 와서 증명하여 일체업장이 소멸되고 일체 악업과 중죄와 모든 장애를 여의케하며 일체의 청정한 법과 모든 공덕을 증장시키고 이롭고 안락하게 하며 모든 병과 두려움을 없애주고 일체의 귀신이 범접치 못하게 하고 모든일을 성취케하며 구하는 바를 만족케하고 특히 흉몽을 길몽으로 바꾸며 수명이 장수하고 풍요와 복덕을 얻게한다고 한다. 이와같이 천수다라니에는 온갖 공덕이 들어있어 그 대비신력과 위신력의 영험은 한없이 높고 그 신묘함은 불가사의하다고 하여 신묘장구 대다라니라 한다.

문의 055-291-7263, 010-3845-2446 (금액협의)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900번길 37-15호 도덕정사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중급과정 (6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칭, 관음시식, 구병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강의일시** :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5시 ~ 6시 30분(90분) 담임교수 원장직강**
◈ **개강일시** : 2020년 **7**월 **16**일(목)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번길 45(낙원동 243-3) 탑공공원 뒷편 ☎(02)741-0495~6

불교 가르침 토대로 평화·민주화 이끌어



최재희의
비긴어게인 미얀마

⑪ 미얀마 지도자들의 불심 2

아웅산 수지 국가 고문 등
가택연금 시 위빠사나명상
불자 우 탄트 UN사무총장
매일 경전 독송 · 명상 수행
삶 자체가 불교사상 기반







사진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우탄트 박물관, 아웅산 수지, 우탄트 UN 사무총장



사진 위 우탄트 박물관 내부 모습. 아래 아웅산 수지 국가 고문의 신행 모습.



다른 신남방정책 국가들에 비해 유독 미얀마는 한국과 비슷한 역사를 가진 나라이다. 미얀마 역사에서 비슷한 키워드를 찾을 수 있다. 바로 'UN' 과 '민주화' 라는 두 단어이다. 미얀마는 우리나라보다 일찍 제3대 'UN 사무총장' 을 배출한 나라이다. 미얀마 양곤에 가면 아시아인 최초로 UN 사무총장을 지냈던 우 탄트(U Thant)의 박물관을 발견할 수 있다. 양곤대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러 갔을 때, 우 탄트 박물관을 거닐다가 그의 손자인 탄트민-우(Thant Myint-U)를 만나 적이 있다. 오랫동안 만나보고 싶었는데 우연히 만나게 되어 하고 싶은 말을 다 못 한 기억이 있다. 나중에 유학생활 중 그를 만나면 그동안 질문하고 싶었던 부분에 대해 마음껏 물어보고 싶다.

미얀마에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놀랐던 점 한 가지는,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 속에 한국 민주화 운동의 숨결이 녹아 있다는 점이었다. 같이 사는 미얀마 룸메이트 언니는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위해 자신의 젊은 시절을 헌신한 언니다. 어느 날, 언니가 아침에 다리미질을 하면서 '임을 위한 행진곡' 을 미얀마어로 불러서 매우 놀랐던 기억이 있다.

그러면서 나에게 '이거,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대표하는 노래 맞지? 미얀마에서도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많은 영향을 받았어' 라고 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한국에 있는 미얀마 사람들이 불렀을 때는 한국에서 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 을 번역해서 한국에서만 부른 줄 알았다. 알고 보니, 미얀마 현지에서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위해 부르던 노래였다는 것을 알고 난 후 느꼈던 신선한 충격을 잊을 수가 없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키워드를 가진 'UN' 과 '민주화' 에서도 미얀마에서는 '불교' 를 빼놓고 말할 수가 없다. 미얀마의 'UN' 과 '민주화' 의 지도자 역시, 신실한 불자(佛者)였기 때문이다. 아시아인 최초로 UN사무총장을 지냈던 우 탄트와 미얀마 민주화를 이룩한 민주화의 어머니 아웅산 수지(Aung San Suu Kyi)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종교를 통해 오랫동안 구성된 개인과 사회 전체의 세계관은 다른 이유로 구성된 세계관에 비해 쉽게 깨지지 않으며 각기 다른 결정 속에서도 비슷한 성향의 결정을 내린다. '우 탄트 · 아웅산 수지' 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신들의 상황 속에서 '불교사상을 바탕으로 한 평화' 를 추구했다는 점이다.

세계 평화의 중재자 우탄트 UN사무총장

미얀마 국민들이 자부심을 갖는 미얀마 인물 중 한 사람인 우 탄트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유명하다. 그는 개발도상국 · 아시아인 최초로 UN사무총장을 지냈다. 그 뿐만이 아니라 그의 사무총장의 역할로 인해 세계적으로 큰 전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쿠바 미사일 위기' 를 평화롭게 해결하면서 '세계 평화의 중재자' 라는 명성을 얻었다. 그리고 그는 재임기간 중에 네팔의 룸비니 동산을 성역화 하여 불자들만의 성지가 아닌 전 세계인들의 평화의 성지가 되었다. 그와 함께 일했던 많은 동료들은 그와 관련된 수 많은 인터뷰에서 '우탄트와 함께 일하면서 종교적인 힘을 느꼈다' 라는 대답을 할 정도로, 불자가 아닌 사람이 봐도 그의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 속에서 불교의 힘을 느꼈다.

우탄트 스스로 자신의 UN사무총장직을 회고하면서 쓴 글에 'UN사무총장으로서 역할을 했던 나의 생각을 이해하려면, 나의 종교적 · 문화적 배경의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 라고 서술했다. 그는 매일 명상과 경전 독송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는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연기(緣起)사상을 바탕으로 이해했다. 그리고 또한 일체만물에 대한 안녕과 평화를 기원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들에게 연민과 자비심을 갖는 것도 그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매우 중요했다. 하루 하루의 삶 속에서 그의 불교적 수행과 가치관은 그가 수행하는 UN사무총장이 논의하고 결정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그의 언어와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표현되어 주변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었다.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은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이끈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어머니' 이다. 아웅산 수지가 미얀마 대통령이 되지 못 하고, 대통령 위의 권력인 국가고문으로 존재하는 것은 군부들이 만든 '외국인과 결혼해 미얀마 국적이 아닌 자녀를 둔 미얀마 사람은 대통령 총선 출마자격이 없다' 라는 헌법 때문이다. 아웅산 수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종종 나에게 어떤 사람들은 '영국인과 결혼한 거 보면 불자가 아니지 않아?' 혹은 '영국 생활 오래 해서 불자라고 할 수 있어?' 라며 말도 안 되는 말을 한다. 미얀마 사람들의 불심이 오죽했으면, 영국인들이 '미얀마인이 된다는 것은 곧 불자가 된다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을까? 아웅산 수지는 미얀마 사람으로 정체성이 매우 강했다. 영국에서 생활할 동안 그녀는 미얀마 론지(미얀마 여성 전통 복장)을 매일 입었으며, 고국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높았다.

미얀마 민주화운동 동안 그녀는 군부로부터 수 많은 가택연금을 당했는데, 그 때 그녀를 정신적으로 지켜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위빠사나 명상이었다. 그녀는 가택연금을 당하기 하루 전, 우 빤디타 큰 스님을 친견(親見)하였고 스님은 그녀에게 가택연금을 당할 동안 '위빠사나' 를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아웅산 수지는 이 만남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인 팔정도인 정어(正語)와 정념(正念)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정어를 통하여 진실의 중요성을, 정념을 통해서는 모든 일에 있어 중도를 지켜야 한다는 점을 자신의 정치사상으로 삼았다. 아웅산 수지의 가택연금 이후에도 그녀가 이끄는 NLD 정당의 당원들도 감옥에 투옥되었는데, 그들도 아웅산 수지와 함께 감옥에서 위빠사나 명상을 했다. 이러한 위빠사나 명상은 곧 미얀마 민주화 운동 인사들 사이에서 정치적인 제도와 같이 정신적인 제도화가 되었다.

아웅산 수지, 민주화운동 '정신혁명' 으로 지칭

가택연금 시기에 매일 명상을 한 것은 그녀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아웅산 수지는 명상을 통하여 정신적인 힘을 얻고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다. 가택연금 전후의 연설을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다. 수지는 명상을 수행하기 전 1989년 6월 연설에서 격양된 어조로 네윈을 비판했다. 수지는 가택연금 동안 명상을 통해 자신의 변화를 이끌어 냈다. 가택 연금 후 네윈을 규탄할 때 사용하던 격렬한 어조는 다시 나오지 않았다. 만약 네윈을 거칠게 비판했던 연설 전에 우 빤디따 스님의 가르침을 들었다면 네윈을 향한 거친 언사는 없었고 그녀는 가택연금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아웅산 수지는 또한 민주화 운동 기간동안 자신을 인터뷰하러 온 사람들에게 '미얀마 민주화 운동' 은 불교적 사상에 기반한 '정신혁명' 과 '자비에 바탕을 둔 비폭력운동' 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녀가 이끈 민주화 운동이 군부의 폭력에 맞서 싸운 또 다른 폭력운동으로 변질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자비' 에 있다. 그리고 그녀는 수많은 인터뷰에서 '폭력으로 민주화를 성취하면 민주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폭력으로 또 다시 민주화세력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권력을 성취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폭력으로 맞서 싸우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아웅산 수지는 '자비' 를 말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추상적이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정치에서 자비란 '실천적인 선의(善意)' 라고 대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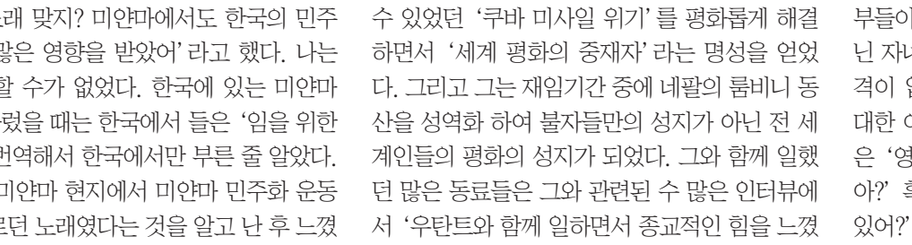
우 탄트와 아웅산 수치가 자신의 분야에서 '평화' 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미얀마의 오래된 전통이자 사상과 문화의 근원인 '불교' 의 힘에 있다. 그들은 매일 명상을 하며, 부처님께서 설하신 자비에 관한 이야기를 생활 속에서 상기시키고자 한다. 미얀마 민주화의 시간은 다소 느리게 그들에게 찾아갔지만, 그 속에는 부처님의 사상이 현대적 상황에 맞춰 담겨져 있다. 미얀마에 갈 일이 있다면, 미얀마 사람들에게 '메타 뽓빼매(자비를 보낼께요)' 라며 빙긋 웃으며 작별인사를 고해보라, 10명 중의 10명은 당신에게 합장을 하며 그들이 가진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그대에게 보여줄 것이다.

〈양곤대 박사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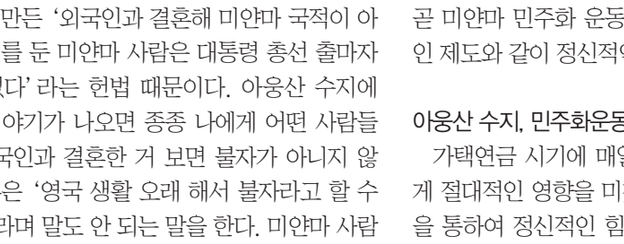
보련기획 BORYEON

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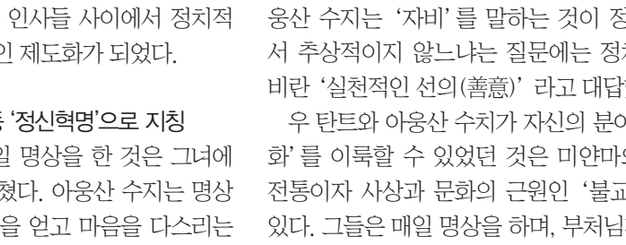
부처님오신날 도량장엄등 설치 • 유지관리



연등 자동승강장치



고정식 연등설치



천불전



인 등



위 패



법당용 연등



공단연등



아크릴한지등

부처님오신날 장엄등



사찰명인쇄 주문접수 중

전선, 전구등 공사자재



www.boryeon.com 010-5381-9355 /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

불생불멸 얻는 것이 佛法의 핵심



지안 스님의 임제록 강설

㉒ 주객미분전(主客未分前)

"여러분! 대장부는 오늘 당장 본래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느니라. 단지 그대들이 제대로 믿지 못해서 생각마다 밖으로 찾아나서 본래 있는 자기 머리는 버리고 다른 데 가서 머리를 찾으려고 헤매는 꼴이 되어 스스로 쉴 줄을 모르고 있을 뿐이니라. 저 원돈보살(圓頓菩薩)마저 법계에 들어가 몸을 나타내어 정토를 향하면서 범부를 싫어하고 성인을 좋아하니 이런 사람들은 취하고 버리는 마음을 쉬지 못하고 더럽다 깨끗하다 하는 분별심이 남아 있는 것이니라. 하지만 선종의 견해는 그렇지 않아 바로 현재 지금뿐이요. 더 이상 다른 시절이 없는 것이다.

산승이 말하는 것은 모두가 그때그때 병을 따라 약을 쓰는 것일 뿐 따로 실다운 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이렇게만 알면 이것이 참다운 출가며, 하루에 만 량의 황금도 소화할 수 있느니라."

'본래 아무 일이 없다'는 말은 〈육조단경〉에서 처음 시작된 말이다. 본래 한 생각 일어나기 이전의 '주객미분전(主客未分前)'을 두고 하는 말이다. 한 생각 일어나면 벌써 망념이 되어 생사심(生死心)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때문에 부질없는 망념으로 스스로의 문제를 만들어 거기에 갇히지 말라는 말이다. 중생은 곧잘 미혹한 생각을 일으켜 자신의 감옥을 만들어 그 속에 갇혀버린다. 깨닫는 순간을 "앞생각 뒷생각이 끊어진다(前念後念斷)"고 표현하는 말도 있고 또 생멸이 본래 없다는 뜻을 시간적으로 표현해 "전제(前際)에 생겨난 것이 아니며 후제(後際)에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非前際生 非後際滅)"는 말도 〈기신론〉 등에 설해져 있다. 과거 어느 때 생긴 것도 아니고 미래 어느 때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말로 마치 허공처럼 생멸이 없다는 것이다. 생멸을 떠나 불생불멸을 얻는 것이 불법의 핵심이다. 이를 무생법인(無生法忍)을 얻는다고도 한다.

"자기 머리를 버리고 다른 데 가서 머리를 찾는다"는 말은 〈능엄경〉에 나오는 '연야달다(演若達多)' 이야기다. 〈능엄경〉 4권에 나오는 이야기로 실라벌성에 연야달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미목(眉目)의 아름다움을 좋아하다가 머리를 돌리니 보이지 않았다. 갑자기 광기가 발동한 연야달다는 자기의 머리가 없어졌다고 머리를 찾아 거리를 뛰쳐나갔다는 이야기다.

이 이야기는 자신 안에 본래 가지고 있던 것을 없다고 여겨 밖으로 나가 찾는 어리석음을 비유한 것이다. 경에서는 또 "미친 마음이 쉬면 곧 보리(狂心歇卽菩提)"라는 말도 나온다. 연야달다가 광기가 발동하여 머리가 없어졌다고 찾아헤맸을 뿐 제 머리는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뜻이다.

돈오를 내세우는 선종에서는 수행의 지위를 두지 않는다. "한 번 뛰어 바로 여래지에 들어간다(一超直入如來地)"하여 찰나에 깨달음을 얻는다 한다. 경절문(徑截門)이라 하여 둘러가는 방편의 길을 모두 버리고 가장 빠른 지름길을 가는 방법을 쓴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간화선(看話禪)에서 화두(話頭)를 드는 것이다. 고려 보조국사 지눌의 〈간화결의론(看話決疑論)〉에 무자(無字) 화두에 대하여 말하기를 "화두를 공부하여 가장 빠르게 깨닫는 선문(禪門)의 방법에 있어서 화두라는 것은 모두 불법(佛法)을 알음아리(知解)로 이해하려는 병통을 가려내는 수단이다. 그러므로 무자(無字) 화두는 마치 가까이하면 얼굴까지 태워 없애는 한 덩어리 불과 같다. 거기에는 불법에 대한 알음아리가 붙을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간화선의 완성자인 대혜종고(大慧宗杲) 선사는 이 무자는 악지악해(惡知惡解)를 쳐부수는 무기라고 했다"고 하였다. 수행의 깊은 경지는 체험을 통하여 얻어지므로, 말로 설명하는 것은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이해시키는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그 방편도 병에 따라 처방하는 약일 뿐 수행 자체에 어떤 법도 실법(實法)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임제는 이것을 알아야 진정한 출가자가 되며 시은(施恩)을 소화해 낼 수 있는 사람이라 하였다.

〈조계종 고시위원장〉

중국 초기 선종, '제불심제일' 능가종



세상 속 경전읽기

㉒ 사종선(四種禪)

선종의 초조 보리달마는 2조 혜가(慧可, 487-593)에게 4권 〈능가경(楞伽經)〉을 주면서 법을 전하니, 이른바 중국 초기 선종은 제불심제일[諸佛心第一, 제불의 심(心)이 제일, 곧 일체유심(一切唯心)]의 〈능가경〉을 소의경전으로 하는 능가종(楞伽宗)이다.

붓다가 능가산에서 대혜(大慧)보살을 위해 설한 경전인 〈능가경〉을 달마대사는 여래심지(如來心地)의 요문(要門)이라고 하였다. 능가(Laṅkâ)는 '가기 어려움[不可往]', '들어가기 어려움[難入]'. '이르기 어려움[不可到]' 등으로 뜻번역되고, 스리랑카를 뜻하기도 하고, 스리랑카의 아담봉(Adam's peak)을 뜻하기도 한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능가경〉의 한역본으로는 1) 구나발타라가 CE 443년에 번역한 〈능가아발다라보경〉 4권, 2) 보리유지가 CE 513년에 번역한 〈입능가경〉 10권과 3) 실차난타가 CE 700~704년에 걸쳐 번역한 〈대승입능가경〉 7권 등 세 가지가 있다. 달마대사 때에는 1), 2)만 있었고, 4권본인 〈능가아발다라보경〉을 혜가에게 전한 것이다.

원효대사는 〈대승기신론소〉와 〈금강삼매경론〉에서 〈능가경〉을 자주 인용하고 있으며, 〈능가경소〉 〈능가경요간〉 〈능가경종요〉 〈입능가경소)〉 〈능가종요론〉 등을 저술하였으나 실전(失傳)되었다. 원효대사 때에도 1), 2)만 있었다.

〈능가경〉 '집일체법품 제2의 3'에서, 선(禪)을 우부소행선(愚夫所行禪), 관찰의선(觀察義禪), 반연진여선(攀緣眞如禪), 제여래선(諸如來禪)의 4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무아의 자각 정도와 수인증과(修因證果)에 따른 분류이다.

무아에는 '인(人)무아'와 '법(法)무아' 의 2무아가 있다. 사람은 오온이 일시적으로 화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니 오온이 흩어지면 사람이 없으나, 오온은 있다는 것이 인무아이다. 법무아는 오온 각각 역시 여러 현상들이 일시적으로 모여 이루어진 것이니, 항상 불변하는 오온이 없다는 것이다. 사람도 없고 오온[곧 제법(諸法)]도 없다는 것이 2무아이다.

사종선 중 1) 우부소행선은 소승의 수행자가 인무아를 알고, 무상(無常) · 고(苦) · 부정(不淨)을 자각하여 행하는 수행이고, 2) 관찰의선은 모든 현상에는 불변하는 실체가 없다는 법무아를 알고, 그 이치에 따라 대상을 자세히 주시하는 수행이고, 3) 반연진여선은 이(二)무아의 분별마저 떠나, 무아라는 마음조차 일으키지 않는 수행이며, 4) 여래선은 붓다의 경지에 들어, 여러 중생을 위해 불가사의한 활동을 하는 수행이다. 1)~3)이 닦는 원인(修因)이 되어 4)의 결과를 증명[證果]하는 것이다.

"또한 대혜여! 4종선이 있나니, 우부소행선, 관찰의선, 반연진여선, 제여래선이 그것이다. 대혜여! 우부소행선이란 무엇인가? 성문 연각의 모든 수행자가 인무아를 알며, 자타의 몸이 (잠시) 뼈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고, 이들은 모두 무상 · 고 · 부정한 모습이라고 확고히 관찰하고 놓치지 않으면, 점차로 수승해져서 무상멸정[無想滅定, 무수멸정(無受滅定)의 다음단계로 보살 제6지에 해당]에 이르나니, 이를 우부소행선이라 하느니라.

관찰의선이란 무엇인가? 개아(個我)가 무상 · 고 · 부정의 인무아임을 이미 알고 또한 외도의 자타분별을 떠나, 법무아의 여러 위차의 모습과 뜻을 따라 관찰하는 것이니라.

반연진여선이란 무엇인가? 이른바 인무아와 법무아를 분별하는 이무아도 허망한 생각이니, 이를 여실히 알아 무아라는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니라.

모든 여래선이란 무엇인가? 붓다의 경지에 들어 성스러운 지혜를 자증[自證, 스스로 깨달아 앎]하는 3종락[천락(天樂) · 선락(禪樂) · 열반락(涅槃樂)]에 머물러 모든 중생을 위해 부사의한 일을 하는 것이니라."

〈大乘入楞伽經 T0672_.16.0602a10-22〉

〈배광식 서울대 치의대학원 명예교수〉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㊽ 닦음의 길 8

참회, 미래 창조하는 에너지

몇 해 전부터 불교대학에서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참회, 발원의 날'로 정해서 108배와 명상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한 달간의 잘못을 참회하고 다가오는 달을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하자는 의도에서 시작하였다. 조계종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 영상에 맞춰 절을 하다보면,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학인들도 보인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성찰에서 나오는 참회의 눈물이자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거룩한 눈물이기도 하다. 선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붓다 당시에도 여러 참회의식들이 있었다. 아무리 수행이 잘 된 사문이라 해도 수백 조항에 달하는 계율을 모두 지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계율은 범(犯)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역설도 등장하였다. 중요한 것은 계율을 어겼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데 있다. 계율을 범하고도 참회하지 않는다면, 몸과 마음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깨침의 길을 가는 데도 방해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붓다는 스스로 참회할 수 있는 몇 가지 장치를 마련해두었다. 자자(自恣)와 포살(布薩)과 같은 참회의식이 바로 그것이다.

자자란 안거(安居)가 끝나는 날 대중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의식이다. 붓다 당시 비가 많은 우기에는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집중수행을 하였는데, 이를 안거라고 한다. 이러한 전통은 지금까지 전승되어 우리의 경우 4월 보름부터 7월 보름까지는 하안거(夏安居), 10월 보름부터 이듬해 1월 보름까지 동안거(冬安居)를 실시하고 있다. 자자는 안거 동안 저지른 잘못을 참회함으로써 업장(業藏)을 털어내고 마음을 가볍게 하는 의식이다.

〈율장〉에는 붓다가 제자 500여 명과 함께 자자를 행하는 장면이 나온다. 의식이 시작되면 가장 어른인 붓다가 대중들에게 자신의 말이나 행동에 잘못이 있으면 지적해주길 바란다고 말한다. 그러면 대중들은 지적을 하거나, 아니면 침묵을 지킨다. 침묵은 잘못한 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붓다의 참회가 끝나면 차례대로 5백 명의 비구들이 같은 방식으로 의식을 이어간다. 그 당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청정 승단이 잘 유지되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자자 이외에도 포살이라는 의식이 있었다. 이는 매월 1일과 15일에 승가의 구성원이 모여서 계율을 잘 지켰는지 점검하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참회하는 의식이다. 포살이 시작되면 대중들은 계율을 함께 외우고 사회자는 대중들에게 조금 전에 합송(合誦)한 계율을 범한 일이 없느냐고 묻는다. 예컨대 거짓말을 한 적이 있는지 물으면, 그런 일을 행한 비구는 대중들 앞에서 참회하면 된다. 사회자가 세 번 질문할 동안 대답이 없으면, 잘못한 대중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간다.

재가자의 경우 포살일이 되면 사찰을 방문하여 예불에 참여하고 법문을 듣기도 하였다. 재가자를 위한 포살의식도 별도로 있었는데, 매월 8일과 14일, 15일, 23일, 29일, 30일 여섯 번에 걸쳐 진행했다고 전한다. 이날에는 여덟 가지 계율(八齋戒)을 잘 지켰는지 점검하고 참회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 8재계란 재가자가 지켜야 하는 5계(戒)에다 ⑥넓고 화려한 평상에 앉지 않고 ⑦머리를 꾸미지 않고 춤추거나 노래하는 것을 보지도 듣지도 않으며 ⑧ 정오가 지나면 먹지 않는다는 등의 세 항목이 더해진 것이다.

중국 고전인 〈중용〉에 "은밀한 것보다 잘 보이는 것이 없고(莫見乎隱), 미세한 것보다 잘 드러나는 것이 없다(莫顯乎微)"는 구절이 나온다. 아무리 은밀하고 작은 일이라도 양심(良心)에 비춰보면 모두 알 수 있는 법이다. 스스로 행한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부끄러운 행동일수록 더욱 그렇다. 그래서 가장 잘 보이고 잘 드러난다고 한 것이다. 〈중용〉에서 홀로 있을 때 행동을 삼가는 신독(愼獨)을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참회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만은 알고 있는 잘못을 고백하는 일이다. 그 용기 있는 고백이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에너지로 작동하는 것이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염불이 힘들면 스트레스 누적이 만성피로!
염불이 편하면 수천번의 힐링이 무병장수!

▣ 본사의 염불전문 시스템이 어느 경지에 올랐고 일반시설과의 수준 차이가 어느정도인지 시설전 반드시! 비교 확인하셔서 평생 수 천번 사용하는 염불시설의 낭패를 면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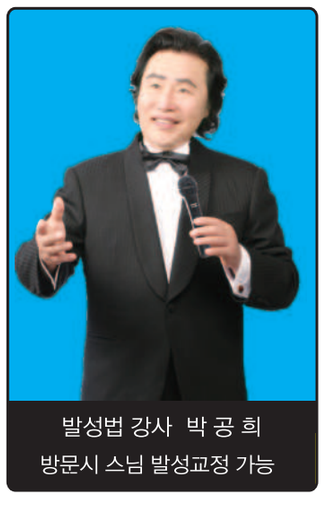
▣ 본사는 서울서 김해로 사업체를 옮긴 후 중·저음 사운드 시설로 염불이 편하다는 입소문을 타고 신흥사, 범어사, 남해의 토굴까지 일천여 시설을 한 베테랑 업체입니다.

▣ 장점 : 앰프다루기 1초! 간결한 제품으로 고장이 없음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LG오디오 1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유선마이크 1개(스탠드 포함)완벽시설, 290만원,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장기할부 카드가능)

방생용, 각종 마이크 구경

▣ 구경 조건으로 신청 : 055-343-1191, 010-9471-2026, 010-7740-2026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발성법 강사 박 공 희
방문시 스님 발성교정 가능

하나씩 체화한 마음공부, 습관화 중요

명상書 톺아보기

김정호의 〈MPPT 워크북〉

〈5〉 앞으로의 수행



마음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생활 속에서 어떻게 꾸준하게 수행을 계속할지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아래에는 지속적인 수행에 도움이 될 내용을 소개한다.

1. 꾸준한 수행

지금까지 해온 것을 매일 꾸준히 실천한다. 삶은 끊임없는 학습으로 이루어 진다. 학습은 영역의존에서 영역독립의 방향으로 진행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학습은 맥락의존에서 맥락독립의 방향으로 나아간다. 한번의 통찰이 와도 그 통찰이 삶 속에서 충분히 익는데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돈오 후에도 점수를 해야 하고 불교수행에서는 보임 수행을 중시한다.

자전거 타는 기술을 한번 배웠다고 자전거 타는 기술의 익힘이 끝나지 않는다. 넓은 곳 뿐만 아니라 좁은 곳에서도 평지에서 뿐만 아니라 언덕에서도, 밝은 낮 뿐만 아니라 어두운 밤에도, 화창한 날씨 뿐만 아니라 일기가 나쁜 날에도 자전거를 탈 수 있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한 손으로는 물건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 핸들을 조절하며 자전거를 탈 수도 있어야 자전거를 잘 탄다고 할 것이다.

강연도 그렇다. 반응이 좋은 청중 앞에서만, 심신의 컨디션이 좋을때만, 청중의 수가 많지 않을 때만, 강의실 여건이 좋을 때만 강연이 잘된다면 강연을 잘한다고 할 수 없다.

웰빙인지의 좋은 문장을 적용하는 마음기술을 제대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웰빙인지문장을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마음 상태가 좋을 때 뿐만 아니라 좋지 않을 때도 가까운 사람 뿐만 아니라 불편한 사람에 대해서도 쉬운일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한 사람, 두 사람, 한가지, 두가지 조금씩 적용하며 웰빙인지의 마음기술을 익힌다.

명상, 마음챙김, 긍정심리 등 마음기술은 마음이 습관적으로 작동하는 기존의 방식을 거스르며 익혀야 하기 때문에 배우고 익히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다보니 머리로는 잘 아는 것 같은데 가슴과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오직 할 뿐'으로 적용의 영역과 맥락을 한가지씩 넓혀 나간다. 그러다 보면 마음기술은 새로운 습관이 되고 그 과정에 즐거움도 따라온다.

공자께서는 학이시습지불역열호라고 말씀하셨다. 학습은 한번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때때로 익히는 과정이 부단히 필요하다. 다행스러운 것은 익힘의 과정이 즐겁다는 것이다. 한번, 두 번,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 배운 것을 다양하게 적용하며 조금씩 기술이 향상되는 것만큼 물리지 않고 오래가는 즐거움이 또 있을까.

2. 심화 수행

생활 속 마음공부를 조금씩 넓혀나가고 깊게 한다. 아래에 몇가지 심화된 수행방법을 소개한다.

먼저 맞춤형 수행법이다. 자신에게 특히 필요한 수행법을 자신에게 맞춰서 마련하고 실천하는 것이 좋다. 맞춤형 수행법으로 맞춤형 마음챙김도 좋다. 예를 들어서 아이에게 과도한 화를 내고 시간이 지나면 그 것을 후회하고 자책하는 부정적 습관이 있는 부모라면 다른 것은 몰라도 아이와의 관계에서 분노 마음챙김에 초점을 두고 수행한다.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에는 분노 마음챙김의 레이더를 켠다. 감정은 이미 올라온 다음에는 마음챙김으로 바라봐도 가라앉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올라오려고 할 때 바라보면 매우 빠르게 감정이 다스려 진다.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에는 분노 마음챙김의 레이더를 켜고 마음 어느 구석에서 분노의 조짐이라도 일어 나는지 잘 예의 주시한다. 마치 레이더 병이 적기가 출현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레이더를 주시하듯이, 적이 영공을 넘기 전에 발견하면 즉각 출동해서 쉽게 격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영공에 들어온 다음에는 격퇴하기 어렵다. 앞으로는 이처럼 자신의 마음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마음챙김 대상으로 삼는 맞춤형 마음챙김을 수행하도록 한다.

담배를 끊으려고 한다면 흡연 욕구에 대해 마음챙김의 레이더를 켜고 흡연 마음챙김하는 것도 좋다. 욕구가 막 올라오려고 할 때 바라보면 쉽게 내려간다. 마치 길가에서 하는 두더지 잡기 게임과 비슷하다. 두더지가 머리를 다 올린 다음에는 뿅망치로 때려도 대려가지 않는다. 그러나 올라오려고 할 때 때리면 금방 내려간다.

> "마음기술 습관 즐거움 줘
> 맞춤형 수행, 하나씩 준비
>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자신의 마음을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웰빙인지 역시 맞춤형으로 마련하고 집중적으로 꾸준히 수행하도록 한다. 자신의 문제가 되는 습관적 생각을 대체할 수 있는 웰빙인지를 정하고 자주 돌아보고 묵상하며 마음에 깊이 스며들도록 한다.

다음은 마음기술을 결합해서 수행하는 것이다. 명상, 마음챙김, 긍정심리의 여러 마음기술들을 실제 생활 속에서 결합해서 수행하면 더 시너지가 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분노를 다스리는데 마음챙김, 웰빙인지, 자비수행 등의 마음기술을 결합해서 적용할 수 있다.

직장에서 부하직원이 일을 지시한 대로 하지 않았을 때 화를 내며 야단을 치면 나중에 너무 심하게 화를 낸 것 같아 스스로 자책하기도 한다.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첫 번째 화살을 맞은 것이다. 그 것으로 인해 화를 낸다면 그 것은 두 번째 화살을 맞는 것이다. 만약 화를 낸 것에 대해 자책한다면 그 것은 세 번째 화살을 맞는 것이다. 이 때 배웠다의 웰빙인지를 적용한다. 이렇게 하면 이번에는 만족스러운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쉬워져서 3차 4차 화살을 맞지는 않게 되고 다음에 유사한 경우에 더 바르게 행동하게 된다. 그리고 분노와 관련해서 불편한 마음을 경험하고 있는 자기, 그러면서 좀 더 성숙해지려는 자기를 향해 자기자비를 한 후에 부하직원을 위해 밝고 따뜻한 자비의 기원을 보낸다. 다음에는 가능하면 화가 일어나려고 할 때 마음챙김을 적용할 수 있고, 그 때 분노 다스리기에 도움되는 웰빙인지, 자기 자비 등을 적용하면 더 좋을 것이다.

정서 마음챙김과 자비 수행을 결합해서 생활 속에 적용하는 것도 좋다. 먼저 정서 마음챙김 카드를 보며 마음을 체크한다. △전반적인 기분을 체크한다. △우울 관련 목록을 체크한다 △불안 관련 목록을 체크한다 △분노 관련 목록을 체크한다 △불만 관련 목록을 체크한다. 이어서 정서 마음챙김 카드를 보며 자기자비를 연결한다. 활기참, 명랑을 바라보며 나의 건강을 기원한다. 내가 건강하여 활기차고 명랑하기를, 편안 여유를 바라보며 나의 평화를 기원한다. 내 마음이 평화로워 편안하고 여유롭기를, 사랑과 친절을 바라보며 나의 행복을 기원한다. 내가 행복하여 사랑과 친절을 베풀기를. 감사를 바라보며 나의 성장을 기원한다. 내가 어려움 속에도 감사할 줄 알아 성장하기를. 자기 자비를 통해 마음이 밝고 따뜻해지면 그 에너지를 주변 사람에게 보낸다. 그가 늘 건강하기를. 그가 늘 평화롭기를. 마음챙김으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마음을 비우고 자비를 기원하며 따뜻함으로 채운다.

열숨 명상에 긍정심리를 결합해서 수행하는 것도 추천한다. 열숨명상 표준형에서처럼 들숨에는 '숫자'를 세고, 날숨에는 '미소-'라고 하며 열 번의 호흡을 하는 '열숨 미소 명상'을 수행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미소-'를 사용하면 얼굴이 이완되면서 편안해 진다. '미소-' 말고도 감사, 사랑, 자비, 평화 등 자신의 마음에 드는 단어를 사용해도 좋다. 이렇게 하면 순수한 명상이라기보다 긍정심리적 요소가 포함된 하이브리드 명상이 된다. 마음을 편안하고 긍정적으로 만들어 주는 효과가 있다.

열숨명상을 비롯해 명상을 끝낼때는 다음과 같이 자비기원을 한 후 마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숨을 쉬고 있고, 느낄 수 있고, 살아 있는 신비한 존재인 나를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이 건강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고 성장하는 삶을 살기를 기원합니다.'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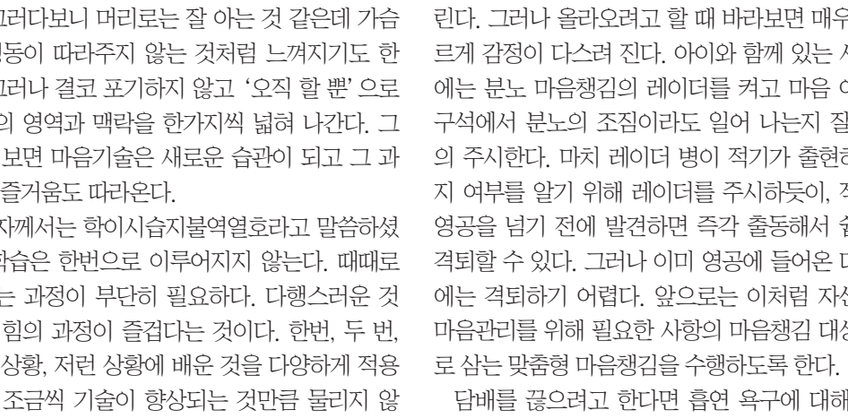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GM SOFT since 2015 사찰신도 관리 프로그램

동종업계 최저가격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기본 19,800원 | 설치비 · 세팅비 전액무료



프로그램 주요 기능
❶ 연등표 출력
❷ 인등표 출력
❸ 위패출력
❹ 문자발송
❺ 기부금 영수증
❻ 사주팔자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지엠소프트 검색 [지엠소프트]를 검색하세요

대표전화 070-7633-2525, 010-8588-2525
상담문의 평일 09:30 ~ 17: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www.gmst.co.kr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 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296호 | 15 | 전면광고

여래의 가르침을 항상 보물처럼 소중히 여겨 항상 읽고 외우고 생각하고 삶 가운데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너희는 언제나 행복하리라.



부처님 말씀 읽기 - 《반니원경》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허리병 고치는 법 받을분 배울분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 내 몸에 맞는 체조로 허리병 고친다

중풍예방. 디스크. 협착증. 불면증.
성인병 등 각종 질병
한번만 오시면 퇴치 가능

2대째 이어온 운동법 발명 특허 획득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검색

50년 전통 상담

010-3829-7582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입종 동참안내

불교문화정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원, 불교선문화원,
불교명상문화원
(설립 운영하실 분)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교육부 산하 상학 인가)

만대 불교학 대학원

010-5412-8040 법광

사찰건축전문

문화재기능962호

대웅전	한옥별장
요사채	재실
누각	산신각

펜션(육송 나무목재만 사용)

원명 010-4300-9104

운명학 단기완성

데이터 기반 명리학과 특별한 비법 단기 강의, 스님께 확신이 됩니다

3개월 단기완성 | 수업료 : 5백만원 교육시간 : 주2회(2시간씩)

문의 010-2480-5677
(아는소리 명리학당 총무)

한국불교태고종 지성선원(창원시 성산구)

★책-검색★

①인생최고의 깨달음(참불교)
②천기소설 예언자(현존불)
③기도와 명상(최상수행법)
④천등산(신통해탈기도비법)
⑤출세의 기술(성공출세술)
⑥운타이밍재테크(평생부자)

네이버에 위 책이름 또는 작가 '태산선사' '손재찬' '손도사'등을 꼭 한번 검색 • 구입해 보세요!!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3263-6544
010-5270-8260

사찰화재 보험

• 목조건축물 OK!! •

전국 최다 사찰 가입

010-7344-1881

아픈 마음을 치료해주는
보승스님의 법문을
가수 이애란이 노래로 불러주는
CD나 USB로 20,000원
(택배비는 본인부담)

농협 351-1134-3833-73
예금주 : 장석근

010-9243-0993

수강생 모집(그림)

• 수업 : 산수화, 풍속화, 달마도, 동자승
• 장소 : 서울 인사동 미술 교육관 (종로오피스텔 4층 401호)
• 매주 수·목요일 주 2일 [월 8일]
• 수강료 : 월10만원

그림에 소질이 없어도 관심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그릴 수 있습니다. 연락바랍니다.

청곡 이한동 화백

010-3747-8692

팔공산 천년고찰
운전도 하고 주지스님
수발하실 보살님 구함
(50대~60세)

010-8833-441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중국교포 환영)
숙식 필수
(60세 이상, 경기도)

010-4253-911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충남 예산)

010-5576-2271

공양주
모십니다
(울산 도심사찰)

010-5736-1835

특수한

기도법 전수, 스님에 한합니다.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1-741-0867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후공부100%(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함

문의 : 054-753-8228, 010-8852-0075

국제 붓다 평화봉사단

국내외 활동 자원 봉사자 환영합니다

지구촌 그늘진 곳곳에서 자비심이 가득한 사랑으로 같이 울고 웃으며 땀 흘려 봉사해온 여성 불자 봉사단 입단의 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02-733-5665

명리·육효강좌

(연결카페http://cafe.naver.com/baikamsa 백암역리원)

영가반 ◦ 초보에서 실천완성

명리·육효학 ◦ 초보반 : 명리·육효 기초가 전혀없는 왕초보
◦ 실전반 : 명리·육효 기초 완성자

백암역리원 02)597-1101

오시는 곳 : 사당역 8, 9번출구 먹거리골목200M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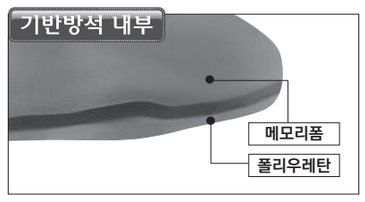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세계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19,000원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7㎝: 7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296호 | 16 | 전면광고

무릇 형상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한 것이니 만약 모든 형상이 허망한 것임을 깨닫는 다면 진실로 여래를 볼 수 있다.



부처님 말씀 읽기 -《금강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부산시내토굴
◎ 대지 : 19평
◎ 지상 3층건물
◎ 각층 : 19평
◎ 매가 : 1억7천5백
◎ 위치 : 충북 제천
◎ 부지 : 35,000평
◎ 사찰부지, 도로접
◎ 배산임수
◎ 매가 : 평당15,000원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채권 채무상담 받습니다.**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공양주,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사찰순례,채권상담,종교법인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나주 동강면
- 대지 230평(임대)
- 법당 20평. 산신각 10평
- 요사채 2동. 범종각
- 영산강 전망이 좋음
- 가액 : 3500만원

010-7637-1250

사찰(급)안내

- 위치 : 경주시 시래동. 정남향
- 대지 194평. 건평 43평
- 법당. 칠성. 산신. 용왕. 나반. 방 친견실. 공양간. 샤워실. 화장실
- 외부시설 : 용왕연못. 탑. 남여화장실 등
- 시설일체. 최고입지요건 갖춘 암자
- 가액 : 2억 3천만원(급양도)
- 사전 전화요망

010-5427-3699

사 찰 안 내

- 위치: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 평수 : 470평
- 가액 : 6억(절충가능) ● 조건: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불상,불화등기타) ● 주변 주차시설 양호함 ● 도시가스, 상수도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쪽

010-3128-2399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 전망 좋은 사찰
- 대지 : 350평
- 대웅전, 삼성각, 요사채 2동(1동은 세집 월세받음)
- 많은 주차, 남향집, 도시가스
- 가액 : 11억 5천만원

010-3269-1023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내 대단지 아파트 뒤 산속. 차량 진입 불가
- 3만평 중 5천평 지분 등기가능
- 가액 : 4억 6천(조정 가능)
- 무허가 건물 ⬬ 종무소.삼성각. 용왕전. 다실. 창고 각각 한동
- 1층 화장실(해우소)/2층 공양간 /3층 법당(큰법당)

011-9394-8511

좋 은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도심
- 대지 200평, 법당 50평, 요사채 100평, 별채 50평
- 가액 : 25억 (대출가능)
- 별채 빼고 양도가능
- 신도다수 ●건강문제로 양도코저 함

02-992-003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지하철 역세권 대도로접3층
- 약 50평, 도시가스, 옥상사용, 주변주차시설양호
- 보증금 500만, 월 45만
- 시설비 1300

010-7337-5956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해남군 소재
- 대지 : 350평
- 건물 : 약 80평 (법당, 요사채)
- 가액 : 답사후 결정

010-7584-8338
010-5718-007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 부지 : 1648평(대지 927평)
- 대웅전(25평). 지장전(15평). 독성각(5평). 목조건물
- 요사채 : 조립식 건물 25평. 황토방 7평. 5평
- 납골당 5000개 가능
- 가액 : 12억 5천(가격절충가능)

010-5421-1536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창원시 마산근교
- 법당 : 50평 ● 요사 : 65평
- 대지 : 5백평 ● 임야 : 4천평
- 가액 : 11억

010-4547-499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충북 청주시 청원구
- 대지 : 60평 / 법인양도 가능
- 법당,요사,접견실,나한전,차고
- 도심포교 요충지(시설.비품 일체)
- 양도 또는 산중 사찰교환가능
- 양도가 : 3억 4천 (보시고 절충)

010-7763-4466

전원주택&토굴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대전시 중구 3층 약50평
- 지하철 도보3분, 대전역 3정거장 도보20분
- 보증금 5백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3천5백만원

010-7725-3196

좋은사찰안내

- 위치: 경남 통영시 중심지 큰도로변
- 대지: 약60평
- 건평: 1층법당21평,공양간, 방 약10평,2층요사채15평, 건물앞주차5대,도량에3층 석탑,석등
- 가액: 3억2천

010-8669-5665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구서동
- 전체면적 : 181평
- 법당, 지장전, 요사채, 별채, 산신각, 종무소외
- 넓은마당, 사찰 외 넉넉한 주차장
- 가액 : 6억 5천만원
- 은행대출 : 2.5억~3억 가능

010-2669-776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 대지 : 114평
- 건물 : 법당, 요사채(방3, 주방, 거실, 화장실)
- 가액 : 1억 1천만원 (대출 2천5백 포함)
- 장호원 차로 5분거리, 공사중인 경전철 차로 8분거리

010-3326-7858

사찰명당터안내

- 위치 : 경북 예천군 효자면 명봉리
- 4필지, 총778평
- 전원주택 3채 건축가능
- 산세수려, 맑은 개울물
- 차진입가능
- 절터명당
- 가액 : 1억(절충 가)

010-3540-0196

동 진 불 사

◎ 위치 : 경주시 안간읍 소재
◎ 부지 : 80평(종교용지)
◎ 법당 : 35평(2층,단청,청기와)
◎ 요사채 : 35평(1층 : 방4개)
◎ 기타 : 산신각, 석등
◎ 가액 : 5억 2천만원
◎ 특징 : 도심 번화가에 위치한 사찰로 포교지로 적지입니다.
◎ 위치 : 경북(갓바이 인근)소재
◎ 부지 : 600평(종교부지)
◎ 법당 : 40평(단청)
◎ 요사채 : 2동 70평
◎ 기타 : 산신각, 석등
◎ 가액 : 4억 2천만원
◎ 특징 : 산사에 위치하고 있어 기도정진할 도량입니다.

**** 제주,부산지역 급매물 찾습니다 ****

좋은 인연을 만들어가는 동진불사 010-4942-045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 2층 천수천안사, 30평
- 보증금 1천만원
- 월 60만원
- 시설금 3천만원

010-8567-3667

사찰·기도(터) 안내

- 위치 : 김해 선안다리 5분거리
- 물건 : 260여평, 법당, 요사, 종각
- 주변이천세대, 시세 평당 350만
- 가액 : 7억5천만원(은) 2억3천 포함
- 진주10분거리, 청정호수 개천면
- 법당, 요사, 국유지 천여평 무상 사용
- 토지970평, 1억5천(기도,수행,자연)

010-9906-363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남성역 5분거리
- 관악산, 까치산 청정도량
- 재래시장 인근, 이동인구 많음 4층건물 중 2층 30평
- 보증금 2천만원, 월 120만원
- 시설 권리금 없음

010-3657-959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백병길 171) 대웅사
- 토지 : 5,830평(종교용지 1,700평, 산168-2번지 4,130평)
- 건물 : 대웅전1동, 요사채(1,2층)1동, 기도방1동(납골당용)
- 특징 : 백병산 중턱의 남한강을 바라보는 전망좋은 기도사찰
- 입주조건 : 매수 또는 매수조건부 장기임대(매수대금 분할상환가능)
- 가액 : 현장답사 후 협의결정.

010-4225-0012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연제구
- 대지 : 123평, 건평 : 60평
- 법당외, 삼성각, 용왕, 호신불당, 마당6층 옥탑, 차고, 자연수(사철)
- 상수도, 뒤는산, 전면 좌우 주택지
- 가액 : 3억 5천

010-2720-1580

◑ 입 종 안 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불교조계종대학림 02)511-1080

불교조계종(총무원) Tel 02)511-2026~7 | Fax 02)511-2028

"살아숨쉬는 생명의 돌"
희담석 방석(고급형) 수량 한정판매~!!!

~~정가 198,000원~~ ➡ 할인판매가 120,000원



- 색상 : 살구색
- 크기 : 450mm X 450mm
※베개겸용 휴대용케이스 증정

희담 가루방석은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여도 원기와 활력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평상시 꾸준한 운동과 더불어 희담 가루방석을 함께 사용하시면 기대 이상의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방법

- 의자나 자동차 등에 일반 방석으로 사용하기만 하여도 원기와 활력을 높여 줍니다.
- 수면시 베개 대용으로 쓰시면 빠른 피로 회복 및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 머리나 목 부위에 응용하면 머리가 맑아지며, 기억력 증진에 효과가 있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판매문의 : 1688-9099 (02-732-1520)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불자의 궁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대구지사	손문철	M 010-2813-8008
부산지사	이도경	M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M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M 010-8642-7733
경남지사	성낙두	M 010-3860-7008
영주지국	박영애	M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0mm) 판매가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행 스님

오직 자불 몽둥이 하나 들고 그것만 가지고 살아라

마음공부를 좀 빨리할 수 없을까요

질문 : 선원에서 마음공부를 하다 보니 처음에는 환희심이 나고 체험도 되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미지근해서 변화도 못 느끼고, 제가 공부가 돼 가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좀 빨리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 그 마음을 공부하는 데 너무 이렇게 서둘지 마세요. 바빠서 서두르면 사람이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방황이 되죠. 그러니깐 방황하지 마시고 어떤 거든지, 우리가 똥을 누든지 잠을 자든지 뭐, 밥을 먹든지 누구하고 만나든지, 보든지 듣든지 하여간에 일거수일투족 다, 생각을 안 하든지 하든지, 그것도 다 주인공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깐 거기서 안 하고 하고가 없으니까 그저 여러분들은 한생각 잘해서 굴려라 이거죠. "한생각을 잘해서 굴리면 잘 생각한 대로 그대로다. 그대로 법이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공부 하는 데 어떡하면 마음공부를 빨리할 수 있을까 그러지 않는 게 좋겠죠.

진짜로 내 껍데기를 이렇게 추려서 달아 보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속 내부를 전체 달아 본다면 근수가 많이 나가겠죠. 그거나 똑같아요. 우리가 보이는 껍데기를 가지고만 말한다면 그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부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죠. 그러나 이 사람은 어디까지나 이 모습이, 모두가 수레바퀴처럼 돼 있다면 항상 그냥 더하고 덜함도 없이 짧게 구르든 길게 구르든 하여튼 쉬지 않고 굴러가는 것만은 사실이죠.

굴러가는데 말입니다, 그 수레바퀴는 굴러가는데 이 차이가 없이 모습은 자꾸 변하기는 변하되 금세 금세 화해서 돌아가는 거,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가는 거, 그거를 진짜로 믿는다면 그대로 자기가 공한 도리를 알고, 공한 도리를 알면 여러분들이 애탄지탄할 게 없이 '함이 없이 24시간 굴렀구나. 함이 없이 굴렀구나. 함이 없이 보고 듣고 말하고 움죽거렸구나. 함이 없이 식구들하고 싸웠구나. 함이 없이 웃었구나. 함이 없이 성냈구나.' 이렇게 그냥 모두가 함이 없다는 것만 알면 죄가 붙을 일도 없고, 유전성이 생길 일도 없고, 영계성이 생길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업보성이 거기 붙을 일도 없고. 이것 괜한 소리가 아니에요.

사람이 어떤 짓을 하고 산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편안하다 편안하다 하면 편안하다는 데다 거기 흡수돼서 돌아가죠. 가정살이가 다 흡수돼서 돌아가요. 그냥 거저 편안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오시면은 얼굴에 기미가 꼬이고 이렇게 얼굴에 그냥 벌써 저거 하면 아주 애탄지탄하고 사시는 게 완연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기미 좀 벗기고 살라고 그러면, 어떤 때 보면 기미가 다 벗겨져 가지고 왔어요. 그것이 내부에서부터 외부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시니까 말이지, 이거는 이쪽의 우리 생명들이 살고 있는 법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주간 법계가 다 그렇죠. 우리가 이 잘못돼 돌아가는 거는 왜냐하면 수없이 우리가 살아오는 그 습 때문에, 관습, 습, 착 그것 때문에 어째 볼 수 없이 툭툭 그냥 그냥 그런 말도 나오고,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못 한다 한다가 나오고 이런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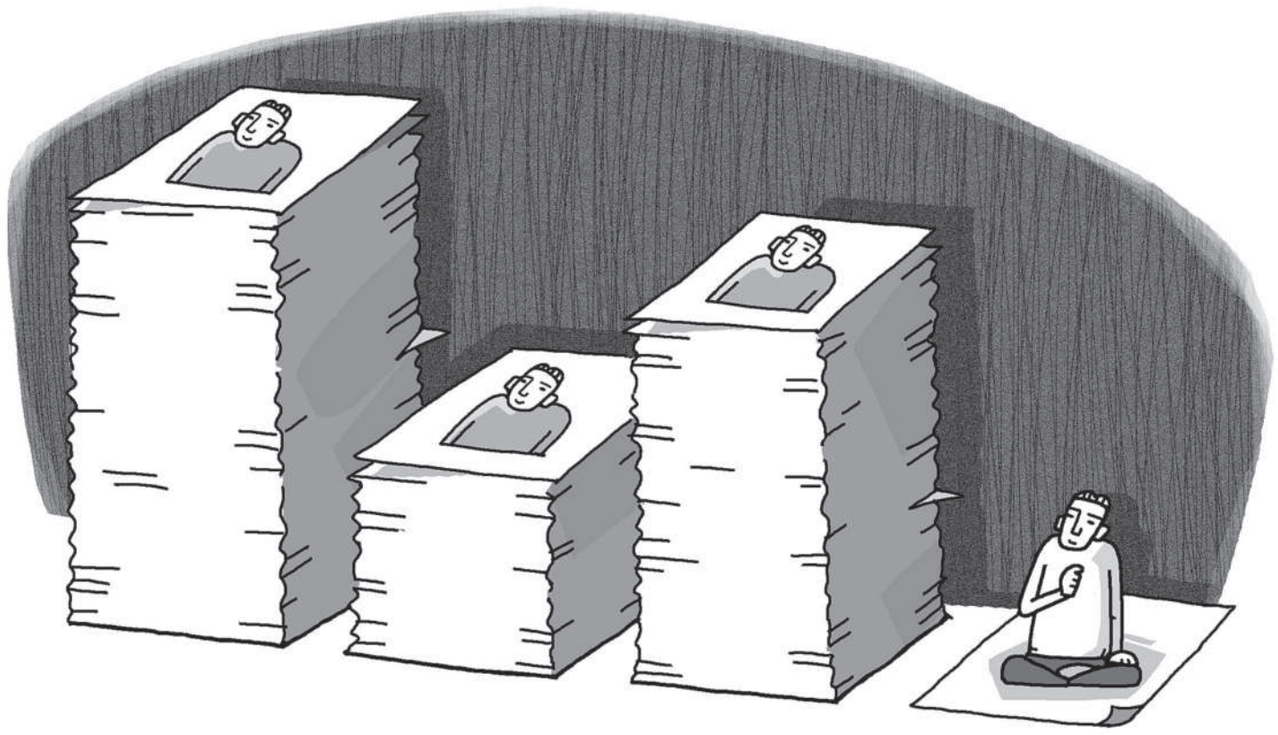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살면서 '감히 이거는 법에도 그렇고 모든 게 이게, 이게 도대체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정말 길고 할 수가 없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사람이 살아나가는 덴 이 법이, 이 유의 법이 있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인정하시는 대로 그대로밖에는 안 돼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무의 법이다, 허공을 걷는다' 이럴 땐 가고 옴이 없이 넘어설 수 있다. 이런 문제를 놓고 본다면 그거는 '하지 못 한다, 한다' 도 거기 붙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결정을 짓는 데에 묘미가 있다는 얘기죠. 인제 수없이 이 공부를 해 오신 분들도 있고 뭐, 30년씩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그렇게 되지마는 말입니다. 근데 30년이고 10년이고 간에, 단 몇 년이고 간에 이게 우리가 습과 착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수없이 모습을, 짐승의 모습과 미생물의 모습으로부터 수없이 바꿔 가면서 진화돼서 이렇게 인간까지 올라왔는데 마지막 인간까지 올라와서도 인간의 구실을 못 하고 착으로 이렇게 하고, 번뇌로 그냥 가고, 습관으로 가고 이런다면 이 내 모습 하나 벗어 놓을 수가 없으니까 다른 거야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깐 세세생생의 수레바퀴에 이렇게 말려서 구르다 보니깐 세세생생이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항상 보죠. 물에서 고길 잡아서 산 채로 그냥 척척 잘라서 회를 쳐서 먹는 거. 닭도 그렇고 모든 게 다요. 그것은 그대로 그렇게 모습을 해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화된 인간이 볼 때는 그것이 '저건 맛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저건 아니야.' 이러는 사람도 있을 테고, '저렇게 산 거를 턱턱 자르지 않아도 그냥 먹을 수 있을 텐데….' 하는 사람도 있고, '저거 그냥 입맛이 딱 떨어진다.' 이렇게 하는 수도 있고, '그 마음은 우리 사는 거나 마찬가지구나. 빠르고 더딜 뿐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지죠.

그 하나하나 생각하시는 데에 따라서 우리가 차원이 주어지죠. 또 행이 주어지고 습이 주어지고 그 습도 함이 없이 주어지죠. 그래서 '습이 없기 때문에 붙을 게 없다'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소리를 알아듣고 평균하게 그냥, 보통 우리네가 정신계와 물질계가 항상 둘이 아니게 돌아간다. 그러니깐 정신계다 물질계다 할 거 없이 그냥 그대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게 그대로 법이다. 생각을 잘하면 안 붙고 모든 게 평등하고, 생각을 못하면 줄줄이 줄줄이 붙는다 이런 거죠.

생각하면 아주 간편하고 그냥 한 발짝 떼 놓는 게 천 리를 한 발짝 떼 놓는 거나 같아요. 이해가 안 가시게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잘 간파하셔서 잘, 우리가 생각 한번 하고 그 생각이 음파를 통해서 파장이 돼서 우주간 법계가 다 알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아셔야 된다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아닌 여러분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모습이 배라면 그 배를 끌고 가는 선장은 바로 모습 아닌 선장이다 이런 소립니다. 여러분들이 아닌 여러분들이지 여러분들이 아니란 얘깁니다.

그 속에는 공생이면서 공심이면서 공체, 공용, 공식으로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진리 속에서 본다면 정말, 정말 볼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한두 건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만 사실 수 있다면 다 건지고도 남아요. 그래서 "이 손을 한데 모으는 것이 십대제자가 있어야 모든 제자들을 건진다. 미생물 하나 버리지 않고 건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하신 게 바로 부처님이 일대사의 인연을 맺으셔서 미생물 하나 버리지 않았다 이겁니다.

이게 말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나 아닌 나가 알아서 그냥 결정하는 말하고 내 껍데기가 그냥 두서없이 말하는 거하곤 천지 차이죠. 즉 말하자면 나 아닌 나가 말하는 것은 에너지 아닌 에너지 창고에서 에너질 꺼내 쓸

☞ 18면으로 계속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진딧물에 속지 말고 자기의 콩씨에게만 집중하라

☞ 17면에서 계속

수도 있는 문제지만, 이 허공이 다 에너지 허공이라고 해도 되죠. 허공뿐만 아니라 모두가 50%는 에너지고 50%는 그 에너지를 감당할 수 있는 색신이다 이거죠. 우리가 이렇게, 얼른 쉽게 말해서 사람을 모습을 보고 이름을 짓고 말을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이름을 짓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엉뚱나가게 잘못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거기다가 놓고 관해라. 알지 못하는 거 거기다 놓고 관해서 거기서 그냥 떨어지게 해라." 허허허. 아니 정말, 정말 그거는 한 번에 거기다 놓고 해서 장풍이 맞으면 그냥 한 아름에 하나로 그냥 떨어지니깐요. 떨어지는 사이가 없으니깐 모르시겠지만 말이에요.

이거는 우주 간 모든 법계에 어느 누구도 다 동시에 한마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여러분 아닌 여러분, 항상 나라고 하지 마시고 나 아닌 나 그게 바로 자기 불성이자 주인공이에요. "불성이자 주인공이죠." 하는 말이 별성이자 주인공이에요. 이게 하치 않은 말 같지만 여기에서 잘 묘미 있게 하신다면 정말 도구를 쥘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모든 고통 잘 극복하려면

질문 : 요즘은 시국이 이러니 우리들 마음 또한 매우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집멸도 사성제를 설하셨는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통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답변 : 여러분들한테 줄창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나간다면 팔자 운명이다 뭐 어쩐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들 살겠지만, 이 마음공부를 하고 가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자기고, 마음을 허탕하게 쓰는 것도 자기입니다. 이 마음공부를 하다 보면 옳고 그른 거, 하지 않아야 될 거, 해야 될 거 이거를 다 알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자체를 쓰는 대로 고다, 고가 아니다 하는 것이지 고가 따로 없는 것입니다, 본래는.

그런데 고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가 자기를 승화시키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막다른 데를 들어가 보지 않았으면, 그 처참하고 갈 길이 없어서 쩔쩔매고 이렇게 해 보질 못했으면 그런 게 앞으로 또 닥치면 기가 막히거든요. 그러니깐 모든 것이 자기 경험이고 또 경험에 의해서 끄달리지 않게 되고, 끄달리지 않음으로써 편안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이 무너져도 그 눈도 깜짝거리지 말라고 그랬죠. 그 마음이 모두 하는 짓입니다. 마음이 고통을 가져오는 것이고 마음이 고통을 가져오지 않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어서 하늘이 무너진다, 뭐 그, 일본에도 그렇고 외국에도 그렇고 지진이 나서 그 야단들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많이. 수만 명이 죽고 그런 때도 있었지만, 그러한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고통은 하나도 없단 얘깁니다. 그 즉시에 죽는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고통이 고통이라고 하니깐 고통이지 고통은 없는 것이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없고 있고를 모두 둘로 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선도 악도 둘로 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고통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가 고통으로 생각 안 하시는 반면에 수많은 생명들이 고통으로 생각을 안 하고 길을 찾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음파를 통해서 다 통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마음공부 하는 분들이 얼마 되질 않아서 그렇지 마음공부 진짜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면 그 허공에도, 즉 말하자면 모든 두루두루 음파를 통해서 살게 되는 거죠. 진화를 하게 되고 모두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에 입력이 되고 그게 현실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얼마나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중요한지 깊이 아마 이다음에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다음에가 아니라 지금 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모두 진화력을 가지게 되고 또 진화를 하되 어떠한 불신한 걸로 하지 않고, 모습이 아주 보기 싫은 걸로 하지도 않고, 잘 모습을 해 가지고 나오고, 마음을 잘 해 가지고 나오고, 또 둘 아니게 착하게 길을 잃지 않고 여여하게 살게끔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마음 하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주인공에다 기쁘게 놓으세요.

갱년기라 몸도 마음도 힘들어요

질문 : 요즘은 제가 갱년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몸이 예전 같지가 않고 여기저기 통증이 생기다 보니 괜히 두렵고 우울해집니다. 육신에 대한 집착이 커서 그런 것일까요?

답변 :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태어나기 이전의 자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태어나기 이전 자기는 정신계의 자기고, 지금 현실에 보이는 물질적 세계는 바로 자기가 형성시켜서 놓은 자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 나무가 자기 뿌리를 무시하겠습니까. 병이 낫고 안 낫고, 일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거는 자기한테 그대로 보배로서 있는 건데….

그거를 진짜 알아서, 둘 아닌 도리를 알고 '낫게 하든지 낫지 않게 하든지 둘이 아닌 까닭에 너만이 할 수 있지 않아. 지켜 주는 것도 너고, 이끌어 주는 것도 너고, 해결사도 너고, 죽이는 것도 너고 살리는 것도 너야. 너만이 할 수 있어. 너만이 함이 없이 할 수 있고, 너만이 보이지 않으면서도 보이게 할 수 있고….' 지금 보이는 나와 안 보이는 너가 둘이 아닌 까닭에 항상 내가 보이면 자기도 보이고 내가 안 보이면 자기도 안 보이고,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렇게 밀접하게 돼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어떤 때 들어 보면 아주 얼토당토않은 그런 말씀들을 하거든요.

어느 분이 어디가 어떻다고 어떻다고 이렇게 그냥 치명적인 말을 병원에서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여기 온 지 얼마나 됐느냐?" 하고 어떤 땐 물으면요, "3년이나 4년 됐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됐다면 이렇게 되지도 않았을 텐데 어찌 그래?" 그러면은 씽긋이 웃고선 "오기는 그렇게 왔으나 몇 번 오지는 않았어요."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깐 넘기가 어렵더라도 좀 실천을 해 보고 죽고 사는 거 그까짓거…. 아니, 그렇다고 해서 굶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어렵게 살라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다 집착을 하고 살지 말라 이거죠. 오직 몽둥이 하나 들고 그것만 가지고 살아라 이거죠. 오직 몽둥이 하나 들고. 이게 바로 주장자며 불성입니다. 자불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무는 자기 뿌리를 믿어야 공덕이 있는 것이지, 자기 뿌리를 믿지 않고 저 큰 나무 이름이나 형상을 찾아 돌아다니는 거는 그거는 공덕이 하나도 될 수 없느니라." 했거든요.

이 마음공부 하는 도리는요, 한번 인연을 만나는 게 천 년에 한 번 만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마음공부 하는 게. 이 옷 벗고 옷 속에 그 곤충의 세계를 다 벗어 버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항상 그 보기 흉하고 그런 곤충 속에서 우리는 헤어나지 못해야 합니까?

부처는 못 된다 하더라도…, 비천상 보셨죠? 은비까비? 금비까빈가 은비까빈가, 그런 것처럼 그저 이것도 이 모습으로도 됐다가 저 모습으로도 됐다가, 이거를 건지려면 이 모습으로도 되고 저거를 건지려면 저 모습으로도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선 다 건지고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벌써 과거, 지나간 과거고 또 앞으로 올 미래고 현재에 살아가는 이 현실이고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름이 과거, 미래, 현재 이러지 이 지구가 돌아가는 자체에 이름은 없습니다. 이름은 없어요. 항상 끊어지지 않고 돌아가기 때문에 이름도 없죠. 그런데 사람은 가르치기 위해서 과거니 미래니 현실이니 하고 이렇게 해 놓고 질서를 지키고 살기 위해서 또 이러니저러니 말을 해 놓고….

하여튼 모든 거를 다 벗어나기 위해서는 꼭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보세요. 공에다가 그냥 모두 집어넣으면, 공을 집어넣으면 뭐가 남습니까, 거기. 공에다 공을 집어넣는데 그 얼마나 빨라요, 글쎄. 사람들이 그냥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그까짓 거 한 번 죽지 두 번 죽느냐. 너 있으면 나 있고 나 있으면 너 있고 모두가 둘이 아닌데 말입니다. 세울 것도 없고, 찾을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알 것도 없고 모든 게 그런데, 모두가 둘이 아닌데…. 이 컵과 컵이 둘이 아니라면 한 컵이, 자기 컵 하나가 자기 컵을 깨트리겠습니까? 마주쳐야 깨트려지지. 그걸 명심하세요.

고2 학생인데 공부하기가 싫어져요

질문 : 저는 학생회 학생인데요, 학교에 가기 싫을 정도로 사람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데, 그런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고쳐지지 않는 제 자신이 너무 괴롭습니다.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으니 공부하기도 싫어지고 방황하게만 되는데 어떻게 해야 저의 마음을 잡을 수 있을까요.

답변 : 우리 학생도 많이 봐 왔겠지만 우리가 지내다 보면 참 가난하고 이를 데 없이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등록금을 못 내서 학교를 못 다니는가 하면, 공부가 하기 싫어서 못 하는 사람이 있고, 공부를 안 해서 부모들이 속을 썩는 사람들도 많죠. 그러나 학생들이 공부하기가 싫은 것만은 아니에요. 자기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속의 업식이 다 '싫어해라, 싫어해. 그건 해서 뭘 하니?' 하고 자꾸 하니까 거기 따라서 그냥 더불어 같이 공부하기가 싫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업식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몸속에 다 저장되어 있는 거거든. 악업 선업이 다 내 안에 있는 거니까, 자기한테 콩씨도 붙어 있고, 자기한테 진딧물도 붙어 있고, 자기한테 벌레도 있는 거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진딧물에 속지 말고 자기의 콩씨에게만 집중해라."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 그런가? 자기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거니까 자기 마음에서 진짜 나오는 건 줄 알고, 생각해 보지도 않고, 이게 나쁜지 좋은 건지 생각지도 않고 그냥 막 저지르는 것뿐이에요. 물론 생각해 본다고 하겠죠.

그런데 잘못되게 하는 마음이 많아서 잘못되는 방향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에 입력이 되고, 그게 현실로 나오는 것이죠. 들이고 내고 들이고 내고 이렇게 살아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입력이 되는 대로 현실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과거에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한 입력을 못 했을 때 입력이 된 그 부분을 어떻게 지우면서 새로 입력할 수 있나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바로 지금 현재 살아가는 어느 부분이 부족한가를 알아서, 예를 들어서 공부가 하기 싫으면 '너만이 공부하는 것을 재미있게 할 수 있어!' 이러고 입력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부하기 싫게 했던 입력이 없어짐으로써 공부를 재미있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뜻을 알겠어요? 배우는 사람이니까 알겠지요.

그래서 과거에 입력됐던 그 모두를, 누적된 모두를 지금 현실에 한생각을 좋게 바란스를 맞춰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나.' 잘 생각해서, 나를 리드해서 물리가 터지게 하는 것도 너다 이거야. 물리가 터져야 잘못된 부분을 고칠 테니까. 지혜롭게 살게 하는 것도 너고, 아픈 것을 낫게 하는 것도 너고, 시험을 보게 하는 것도 너니까 잘 보게 하는 것도 너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그렇게 관(觀)해 보세요.

잠이 와서 공부가 안 된다 할 때도 잠을 안 오게 해서 공부를 하게 하는 것도 너고, 하기 싫다 의욕이 없을 때 의욕이 있게 하는 것도 너라고 관해서 거기다 입력을 하면 앞서 입력된 것이 없어지면서 새 입력으로서 현실에 나온다 이거예요.

모든 것을 그렇게만 한다면 불평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학생의 모습이 더없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을 자유스럽게 이끌어 갈 수 있게 항상 이끌어 주는 내 안의 주인공을 감사하게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영원한 나의 친구이자 나의 길잡이인 주인공을 진실하게 믿고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 보세요.







용수 스님의 아침편지

수행은 이 순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우리는 수행을 잘못 알고 있어요. 수행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는 것이 수행입니다. 자신을 고치는 것보다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상황을 고치는 것보다 받아들이는 것이 수행입니다. 사람들을 고치는 것보다 받아들이는 것이 수행입니다. 수행처를 따로 정하고 무언가를 정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 순간의 상황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완벽해 질 때까지 기다려서 행복해 질래요? 아니면 지금 있는 그대로 만족하고 받아들여서 당장 행복해 질래요? 허물을 다 고쳐서 행복해 질래요? 아니면 허물에 대한 불만을 버려서 바로 행복해 질래요?

아쉬워하는 것과 바라는 것과 억울하다고 하는 모든 것을 모두 버려서 이대로 만족하고 충분하고 그저 깨어있는 것을 배우십시오. 행복과 깨달음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갈 길은 멀지만 행복하게 갈 수 있어요. 매일 감사와 만족으로 살 수 있다면 자신이 사랑스럽고 복이 넘칩니다.





진광 스님의 길 위의 풍경들

⑪ 티베트– 시가체서 라싸까지

타쉴룬포 사원 광장서 올린 예불 '감동'

암드록초 호수를 지나 장쯔로 가는 길에 순백의 만년설로 덮힌 해발 7200m의 장엄한 카로라산을 만난다. 그곳의 해발 5022m 전망대에서는 태고의 신비인 카로라산 빙하(氷河)를 조망할 수 있다. 그러나 고산증세로 인해 숨조차 쉬기 어렵고, 한 발자국 옮기기도 쉽지 않다. 다만 대자연의 신비로움 앞에 그저 찬탄과 경외의 마음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장쯔는 천연의 요새로 영국과 네팔 연합군의 침공시 끝까지 저항하다가 산화한 곳으로 유명하다. 무엇보다 신라의 천축구법승인 오진(悟眞) 스님이 돌아오는 길에 근처 고갯마루에서 입적한지라 더욱 의미가 있는 곳이다. 이곳에 티베트불교의 샤카 · 까담 · 겔룩의 3개 종파가 공존하는 바이쥐사(白居寺)가 있다. 특히 탑 내부에 불당과 불탑이 있고, 벽화 위에는 10만개의 불상이 그려져 있어 '십만불탑(十萬佛塔)'이라 불리는 아름다운 탑이 자리한다.

이곳에서 순례대중은 이곳을 거쳐 간 천축구법승들을 기리는 추모제를 가졌다. 이역만리에서 오직 위법망구의 구도열과 순례로 앞서간 이들로 인해 지금의 조계종과 우리들이 존재하는 것이리라. 혜총 스님의 감동적인 법문에 어느새 감격의 눈물과 환희가 밀려들며 새로운 신심과 원력을 다져본다.

샤루사(夏魯寺)는 티베트 대장경(구나르탕 대장경)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곳으로 지금은 옛 영화를 간직한 소박하고 한적한 곳이다. 그래서 더욱 정감이 드는 실로 숨은 보석과도 같은 사원이다. 사원안의 우물물로 혜총 스님께서 마정수기를 해 주시고 선물로 산 티베트 불상의 점안까지 해 주셨다. 사원 담장을 도는 코라길에는 야크똥을 벽에 붙인 풍경과 천진한 아이들을 볼 수 있었다.

시가체(日喀則)는 티베트 제2의 도시로 판첸라마가 계신 타쉴룬포(托什佗布) 사원이 자리한 곳이다. 피곤에 지쳐 잠이 들었는데 아침부터 멀리서 가까이로 들려오는 호텔 직원의 노크소리와 함께 "할로우 모닝콜!"이란 외침에 잠이 깨었다. 필자가 들어본 모닝콜 중에 단연 압권이 아닐 수 없다.

타쉴룬포 사원은 오전 10시나 되어야지 문을 연다며 늦게 나가자는 것을 8시부터 길을 재촉해 나섰다. 사원 앞 광장에는 이미 오체투지를 하는



판첸라마의 주석처인 타쉴룬포 사원 전경 스케치.

판첸라마 주석처 타쉴룬포 사원
예불하며 선지식들 구도열 기려
곳곳서 공안 단속에 '안타까움'

티베트인들로 인해 활기차고 성스러운 분위기이다. 우리도 내친김에 광장에서 타쉴룬포 사원을 바라보며 아침 예불을 올렸다. 이럴 경우 공안에게 단속돼 큰일이 날 수도 있는데, 그 순간만큼은 누가 뭐라고 해도 기필코 예불을 드리고 싶었을 따름이다.

그 순간의 감동과 환희를 어찌 언설로 다할 수 있단 말인가! 현지인의 신기한 눈빛과 공안의 감시의 눈초리 속에서도 한국불교 전통식으로 예불을 뜨거운 눈물과 환희로 봉행하였다. 너무나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두 번 다시 있을 수 없는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죽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행복의 충격과 전율에 빠져 황홀했다.

타쉴룬포는 판첸라마가 주석하는 곳으로 한때는 6000여 명 이상의 스님들이 계셨으나 지금은 300여 명의 스님들이 살고 있다고 한다. 신령스런 타시산(托什山)의 4부 능선이 모두 사원 건물로 채워진 세계 최대의 사원 가운데 하나이다.

이 사원은 세계에서 가장 큰 청동 미륵대불로 유명하다. 높이 26.4m에 동구리만 200만 근이 들어 갔으며, 황금 6백kg이 섞여 있고, 이마에는 다이아몬드와 비취, 진주, 루비 등의 온갖 보석으로 치장되어 감탄을 금치 못한다. 또한 아미타불의 환생이라 믿어지는 5대 판첸라마부터 9대까지 영묘탑이 장엄하다.

미륵불상 앞의 풀리지 않는 매듭 문양의 천에 작고 예쁜 새가 들락거린다. 아마도 극락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다. 아니면 어느 선사의 호리병 속의 새일지도 모를 일이다. 대전앞 공터에 주저앉아 티베트 스님과 불자들을 바라다본다. 하늘은 눈이 부시도록 푸르고 사원은 황금빛으로 반짝이건만, 주인 잃은 슬픔과 절망 속 그 어디에도 희망은 없는 듯하여 나그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시가체를 떠나 알룽창포 강을따라 라싸로 되돌아 가는 길이다. 중간에 현지인 식당에서 티베트식으로 점심 공양을 하고는 뒤란에 나가 보았다. 천장조차 없는 뻥 뚫린 간이 화장실에서 볼 일을 보고는 알룽창포 강 너머의 그림 같은 풍광을 바라본다. 밤이면 무수한 별들의 향연으로 더욱 멋지고 아름다울 것이다.

삼예사원(桑耶寺)은 티베트에 건설된 최초의 사원이다. 만다라식 우주를 형상화시킨 사원으로 샨타라크시라가 6일의 티베트인 스님에게 최초의 수계를 내려 최초의 승단이 시작된 곳이다.

또한 794년 인도 승려 카말라실라와 중국 선종의 마하연 선사가 맞붙은 '삼예 대논쟁'이 벌어진 곳으로 유명하다. 특히 신라 정중무상 선사의 선법을 이은 바쎄와 세르난이 주적했던 곳이기도 하다.

미리 준비한 위폐와 정성껏 준비한 재물을 마련해 정중무상 선사와 수법제자인 바쎄와 세르난 스님과 함께 천축구법승을 기리는 추모제를 봉행하였다. 모든 스님네가 이로 인해 저마다 환희스럽고 행복한 미소를 머금고 있다.

삼예사원 앞에서 '옴마니 반메 훔'을 티베트어로 쓴 현수막을 펴고 기념사진을 찍으려다 공안과 한바탕 언쟁을 벌였다. 티베트의 하늘엔 오성홍기만 휘날려야 한다는 것이다. 유한한 권력과 국가의 깃발이 어찌 진리의 법기(法器)를 당할 수 있겠는가? 부처님의 지혜광명은 날로 빛나고(佛日增輝), 바람결에 타르쵸가 나부끼며 온 세상에 진리의 법음을 널리 굴리고 있는(法輪常轉) 것을!

〈조계종 교육부장〉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

대행 스님 법문의 정수가 담긴
2019년 최고의 결정판!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 초창기 법문의
핵심을 모아 한 권으로 엮은 책

삶의 지침이 될 지혜의 가르침들이
내 마음에 꽃이 되어 피어나다!

한마음선원 출판부 엮음 | 양장본 | 총 384면 | 책값 18,000원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04 무진향 031)470-3118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한제지

불기 2564(2020)년 부처님오신날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

종이를 펼치면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온라인 매체 때문에 신문이나 책은 점점 멀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신문과 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펼칠 때마다 생생히 보이는 아름다운 세상의 소식과 지식이

펼쳐지는 신문과 책 – 그 종이를 대한제지가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제지를 펼쳐보세요,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